

2019

정책연구 2019-26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진 김시백 · 김형오 · 박세현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19-26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진

연구책임 김시백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김형오 ·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세현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8JU2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1. 연구 내용	5
2. 연구 방법	6
제2장 관광산업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검토	11
제1절 관광산업 효과 분석 사례	13
1. 산업연관표 활용	13
2. 사회계정행렬 활용	18
3. 관광위성계정 활용	19
4. 빅데이터 활용	22
제2절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24
1. 국민계정	24
2. 위성계정	26
3. 관광위성계정	27
4. 지역관광위성계정	39
제3장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41
제1절 국민여행 실태조사 원자료 검토	43
1. 전국 단위	43
2. 지역별	48

제2절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62
1. 지역 산업연관표 작성	62
2.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67
제4장 전라북도 관광산업 효과 분석	71
제1절 관광 GRDP	73
1. 관광산업의 범위	73
2.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74
3.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77
4. 지역 관광산업	81
제2절 전라북도 관광 GRDP	86
1. 전라북도 관광 GRDP 위상	86
2.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특화 정도	87
제3절 전라북도 관광산업 유발계수	90
1. 전라북도 관광산업 유발계수 변화 추이	90
2. 지역별 관광산업 유발계수 비교	90
3. 지역 내 타 산업 유발계수 비교	91
4. 관광객 유치 규모에 따른 유발계수 비교	93
제5장 결론	9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97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100
참 고 문 헌	101
부 록	105
1. 지역별, 연도별, 항목별 여행 비용	107
2. 전라북도 연도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	113

표 목 차 | Contents

[표 1-1]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GRDP 기여도 분석 예시(2008년 기준)	9
[표 1-2]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고용 기여도 분석 예시(2008년 기준)	9
[표 1-3]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특화지수 분석 예시(2008년 기준)>	10
[표 2-1] 지역별 관광지출의 전국 및 지역 내 승수	14
[표 2-2] 지역별 관광산업의 누출구조	14
[표 2-3] 산업 분류	15
[표 2-4] 지역별 관광산업 생산성	16
[표 2-5] 지역별 관광산업 생산유발승수	16
[표 2-6] 지역별 관광산업의 생산, 취업, 부가가치 유발승수(2005년 기준)	18
[표 2-7] 생산유발승수 비교(산업연관분석 vs 사회계정행렬)	19
[표 2-8] 한국 관광산업 연도별 기여도	22
[표 2-9] 관광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분석	23
[표 2-10]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5대 국민경제통계	24
[표 2-11]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개념적 정의	27
[표 2-12] <관광위성계정 개념도>	29
[표 2-13] 관광소비 발생 지역 구분	30
[표 2-14] 관광소비 분류	31
[표 2-15] 관광위성계정의 관광상품 분류와 내용	32
[표 2-16] 관광산업 특수분류	36
[표 2-17] 관광 GDP 기여도 세부 산출 방법(WTTC 기준)	38
[표 2-18] 공급 측면에서 관광의 규모 결정 지표들 사이의 관계	39
[표 3-1] 여행 유형별 여행 참가 횟수	44
[표 3-2] 여행 유형별 이동 총량	45
[표 3-3] 여행 유형별 평균 여행 일수(숙박여행만)	45
[표 3-4] 여행 유형별 여행 비용	46

[표 3-5] 여행 유형별 여행 횟수당 여행 비용	47
[표 3-6] 여행 유형별 여행 일수당 여행 비용	47
[표 3-7] 국내여행 지역별 참가 횟수	48
[표 3-8] 국내여행 지역별 이동 총량	49
[표 3-9] 국내여행 지역별 여행 비용	50
[표 3-10] 국내여행 지역별 여행 횟수당 여행 비용	51
[표 3-11] 국내여행 지역별 여행 일수당 여행 비용	52
[표 3-12] 숙박여행 지역별 참가 횟수	53
[표 3-13] 숙박여행 지역별 이동 총량	54
[표 3-14] 숙박여행 지역별 평균 여행 일수	55
[표 3-15] 숙박여행 지역별 여행 비용	56
[표 3-16] 숙박여행 지역별 횟수당 여행 비용	57
[표 3-17] 숙박여행 지역별 일수당 여행 비용	58
[표 3-18] 당일여행 지역별 참가 횟수	59
[표 3-19] 당일여행 지역별 여행 비용	60
[표 3-20] 당일여행 지역별 횟수당 여행 비용	61
[표 3-21]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산업 분류	63
[표 3-22] 국내여행비용 세부 항목 처리를 위한 전체비	68
[표 4-1]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부가가치 규모	74
[표 4-2]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부가가치 지역 내 비중	75
[표 4-3]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취업자 규모	76
[표 4-4]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취업자 지역 내 비중	77
[표 4-5]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부가가치 규모	78
[표 4-6]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부가가치 지역 내 비중	79
[표 4-7]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취업자 규모	80
[표 4-8]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취업자 지역 내 비중	81
[표 4-9] 지역 관광산업 부가가치 규모	82
[표 4-10] 지역 관광산업 부가가치 지역 내 비중	83
[표 4-11] 지역 관광산업 취업자 규모	84

[표 4-12] 지역 관광산업 취업자 지역 내 비중	85
[표 4-13] 지역 적간접 관광산업 취업자 지역 내 비중	86
[표 4-14] 지역별 관광산업 특화지수	87
[표 4-15]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	88
[표 4-16] 전라북도 산업별 특화지수	89
[표 4-17] 전라북도 관광산업 유발계수	90
[표 4-18] 지역별 관광산업 유발계수	91
[표 4-19] 전라북도 산업별 특화지수	92
[표 4-20] 관광객 1,000명 유치 시 지역내 발생하는 효과	93

■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8
[그림 1-2] 관광산업 분리 산업연관표	8
[그림 2-1] 관광GDP 기여도 산출 절차	21
[그림 2-2]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	25
[그림 2-3] 관광 공급과 소비 분석 구조	33
[그림 2-4] 관광지출에 따른 관광산업의 범위	34
[그림 2-5] 계정간 관계도	40
[그림 3-1]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의 구조	65
[그림 4-1] 관광산업의 범위	73

1

장

서론

Jeonbuk Institute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관광산업은 생산 및 고용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같이 연관산업으로 파생되어 발생하는 소득 창출 효과가 있어 지역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손쉽게 정책 개발 및 수립할 수 있는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경제적 파급효과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 시장 규모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시장 규모가 작은 중소 지자체일수록 소규모 관광 투자 및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큰 산업임
- 일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생산, 고용, 부가가치 및 지방세수 승수를 도출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 산업연관표는 산업간의 연관관계에 초점을 맞춰 작성되어 특정 산업에서 발생하는 최종 수요의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연관산업 생산 증가 효과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임
- 관광산업의 효과를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해당 지역 내 지출 규모가 관광산업의 최종 수요라고 보고 이에 대한 효과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하지만 관광 자원 및 시설 개발 등에 대해서는 관광산업이 아닌 건설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광산업의 경제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가짐
- 전라북도내 관광객의 관광활동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이 일차적으로 지역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고 관광산업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지역내

타 산업의 생산활동 및 경제활동의 변화(고용, 소득, 지방정부 재정)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나 그 기여도나 부가가치 창출규모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차원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수 없으며, 관광산업과 타 산업간의 융합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2. 연구 목적

- 2009년 수행하였던 「전라북도 관광산업 규모 예측을 위한 지역 관광위성계정 구축」의 연구 틀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들의 관광위성계정 작성에 관한 표준지침을 지역 단위에 적용하여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되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수요 측면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접근하여 관광산업의 지역 경제 기여도 및 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함
- 선행연구는 관광 수요(관광객 지출)만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규모를 추정하였으며, 타 산업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다만, 전라북도의 현재 관광객의 특성상 국외 관광객의 비중이 극히 낮고 대부분 국내관광객이라는 점에서 내국인 국내 관광활동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작성하고자 함
- 또한 선행연구는 2008년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발표된 지역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관광산업의 규모 및 위상 변화를 파악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라북도 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진단하고 향후 전라북도 관광객 유치 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1) 기존 연구 문헌 검토 및 자료 구축

- 타 지역 관광산업 규모 및 효과 분석 사례 검토
 - 산업연관표 기반 분석 연구 결과 검토
 - 관광위성계정 기반 분석 연구 결과 검토
-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정리
- 관광산업의 범위 설정
 - 공급 측면에서의 관광시설 및 사업의 정의
 - 수요 측면에서의 관광산업 및 상품의 정의
- 관광위성계정의 정의
 - 국민계정 및 위성계정의 개념
 - 위성계정의 범위
 - 관광위성계정의 구조

2)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 전라북도 관광 자원 및 시설 현황 분석을 통한 관광 공급 계정 작성
 - 전라북도 관광산업 사업체 기초 통계 분석
 - 전라북도 공공 투자 및 지출 규모 분석
-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를 활용한 관광 수요 계정 작성
 - 관광객 유형(당일, 숙박)별 지출 행태 분석
 - 관광객 소재지별 지출 행태 분석

3) 전라북도 관광산업 효과 분석

- 관광산업의 전라북도 경제 기여도 분석
 - 관광 부가가치, 관광 고용 유발효과
 - 지역 소득 및 지방세 유발효과
- 관광산업의 전북 내 타산업과의 관계 분석
 - 산업별 관광 특화 지수 및 영향력 계수 도출
- 관광객 유입에 따른 관광산업 성장 효과 분석
 - 유형별 관광객 1인당 유입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 성장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
 - 관광객 1인당 지출 규모 변화에 따른 관광산업 성장 및 지역 경제 파급 효과
- 관광자원 고정자본 투자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 성장 효과 분석
 - 관광시설(관광단지 및 자원) 개발 사업 비용 투입에 따른 효과
 - 관광진흥사업(정부 투자) 비용 투입에 따른 효과

2. 연구 방법

□ 1단계 : 관광위성계정 개념 정립 단계

- 지역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관광위성계정 개념 정립
 -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정의 및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전라북도에 맞는 관광 위성계정 내용을 설정
- 관광산업의 범위 설정
 -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발표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전라북도 관광산업을 규정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중분류 30개, 소분류 168개)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맞춰는 작업 진행

□ 2단계 : 전라북도 여건에 맞는 관광위성계정 작성 방향 설정 단계

- 타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 사례 검토
- 전라북도의 상황에 맞는 작성 범위 설정
 - 2009년 수행한 「전라북도 관광산업 규모 예측을 위한 지역 관광위성계정 구축」 연구 결과를 준용함
 - 다만, 관광 자원의 고정자본형성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광 관련 예산 투입을 파악할 수 있는 정부 지출의 범위 등 추가적으로 확대하려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료 취득 이후 최대한 반영

□ 3단계 :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단계

-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 감안, 작성 원칙 설정
-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및 가공
 - 관광소비지출(민간) 부문의 자료를 얻기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
 - 관광재화 생산 측면의 자료를 가공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지역간산업연관표를 활용
- 고정자본 형성 : 관광자원의 고정자본 형성 규모 파악
 - 민간 부문 : 관광산업 사업체 기초통계 자료 중 시설투자비
 - 공공 부문 : 전라북도 연도별 예산 중 관광자원 개발 육성 분야

□ 4단계 : 전라북도 산업연관표 정리

- 기존 관광산업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은 아래 그림의 음영부분의 계수값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관광과 관련된 산업의 유발승수 평균값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광산업을 분리하여 유발승수값을 구하고자 함

		중간재		최종재	
		A산업	B산업	A산업	B산업
중간 투입	A산업				
	B산업				
부가 가치	피용자 보수 등				
	고정자본 소모				

[그림 1-1]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 1단계 : 국민여행실태조사의 관광객 지출 행태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별 최종재 소비를 관광과 비관광으로 분리
- 2단계 : 관광분야 A산업 최종재 생산을 위한 중간재 생산 규모를 산업연관표의 기술 계수를 활용하여 추정
- 3단계 : 그림의 음영 부분의 값을 토대로 전라북도 관광산업 유발승수계수 도출

			중간재				최종재			
			비관광		관광		비관광		관광	
			A산업	B산업	A산업	B산업	A산업	B산업	A산업	B산업
중간 투입	비 관광	A산업	③ 기존 산업연관표에서 ②의 값을 빼고 계산	② 산업연관표의 기술계수와 ①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		① 국민여행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산				
		B산업								
	관광	A산업								
		B산업								
부가 가치	피용자보수 등		③ 기존 산업연관표에서 ②의 값을 빼고 계산	② 산업연관표의 기술계수와 ①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						
	고정자본 소모									

[그림 1-2] 관광산업 분리 산업연관표

□ 5단계 : 지역 관광위성계정 활용 지역경제효과 분석

○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파급효과 유발 승수 계수 도출

-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유발 승수 계수와 타 산업의 유발 승수를 비교하여 관광산업의 지역 내 위상을 파악
-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전후방 연관관계가 높은 산업들을 뽑아내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지역 경제 기여도 분석

- 전라북도내 관광객의 소비 지출 규모에 따라 전라북도의 산업별 총 부가가치 대비 관광 부가가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와 그에 따른 고용 효과 파악

[표 1-1]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GRDP 기여도 분석 예시(2008년 기준)

	GRDP(A)		관광 GRDP(B)		(B/A)
	규모(백만원)	비율	규모(백만원)	비율	
전라북도	21,942,193	2.86%	575,945	4.74%	2.62%
기타지역	744,877,788	97.14%	11,568,275	95.26%	1.55%
전국 합계	766,819,981	100.00%	12,144,220	100.00%	1.58%

[표 1-2]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고용 기여도 분석 예시(2008년 기준)

	총 고용자수(A)		관광 고용자수(B)		(B/A)
	인	비율	인	비율	
전라북도	689,072	3.91%	30,289	6.13%	4.40%
기타지역	16,912,766	96.09%	463,453	93.87%	2.74%
전국 합계	17,601,838	100.00%	493,742	100.00%	2.81%

○ 관광산업 지역 특화도 비교

-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이 전국 대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는지를 판가름하고 LQ지수를 적용하여 산업별 관광특화정도를 파악함

[표 1-3]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특화지수 분석 예시(2008년 기준)>

	관광 LQ(A)	LQ(B)	A/B
농림수산물	0.98	1.41	0.70
음식료품	1.25	1.54	0.81
건설	0.03	0.05	0.53
도소매	1.44	1.18	1.22
음식점및숙박	7.33	6.72	1.09
운수및보관	7.20	5.92	1.21
통신및방송	0.43	0.51	0.84
금융및보험	0.39	0.53	0.7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0.59	0.55	1.09
공공행정및국방	0.03	0.05	0.50
교육및보건	0.06	0.08	0.73
사회 및 기타 서비스	5.99	5.44	1.10

○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 경제 파급효과 분석

- 관광객 유형(숙박 여부, 거주지 기준 등)별 파급효과 유발 승수 계수 도출
- 관광객 지출 유형 및 규모에 따른 파급효과 유발 승수 계수 도출

○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비교

- 관광시설 건설에 대한 효과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건설산업으로의 예산 투입 효과로 이는 기존 산업연관표로 구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해 관광산업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
- 두 번째 측면은 관광시설 유형에 따라 관계되는 관광산업(예를 들어 호텔을 짓는 경우 숙박업, 전시장을 짓는 경우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의 고정자본 형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관광객 유치 및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음

○ 관광진흥사업 비용 투입에 따른 효과

-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 등으로의 예산 투입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산업 파급효과 계산

2

장

관광산업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검토

Jeonbuk Institute

제1절 관광산업 효과 분석 사례

제2절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제2장 관광산업 경제효과 분석 방법론 검토

제1절 관광산업 효과 분석 사례

1. 산업연관표 활용

- 관광산업의 효과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부터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관광 시설 투자나 관광객 지출에 따른 최종 수요 변화가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단기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됨
-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에서 관광산업이 자체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제약으로 인해 관광산업을 따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는 관광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분석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구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어 왔음
- 지해명(2003)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지역간 교역계수 등을 조사하여 다지역 산업연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지역별 관광지출승수의 크기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산업구조 분석과 누출 규모 및 경향을 파악함
- 이 연구에서 관광산업의 파급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승수가 관광지출의 주입과 누출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상품별로 관광 지출에 들어가는 비율을 적용하여 지역별 관광산업 파급효과를 계산함
- 그 결과, 서울, 경기, 경남과 제주가 관광산업의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역외 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역내 산업과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표 2-1] 지역별 관광지출의 전국 및 지역 내 승수

	전국 승수		지역 내 승수			누출 비중(%)		
	생산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생산	부가가치	고용
서울	2.16	3.36	1.40	0.68	2.48	35.3	32.2	26.0
부산	2.11	3.24	1.23	0.60	2.19	41.8	39.8	32.6
대구	2.01	3.08	1.07	0.58	1.96	46.7	42.3	36.3
인천	2.20	3.41	1.18	0.52	2.04	46.5	47.6	40.3
광주	1.97	3.02	1.07	0.59	1.94	45.6	41.3	35.9
대전	1.93	3.04	1.04	0.60	1.90	45.9	39.9	37.5
경기	2.06	3.17	1.29	0.63	2.15	37.6	37.1	32.2
강원	2.01	3.12	1.13	0.59	1.97	43.9	40.7	36.8
충북	2.02	3.10	1.08	0.56	1.92	46.5	44.2	37.9
충남	2.08	3.18	1.10	0.54	1.94	47.4	45.8	39.1
전북	2.03	3.17	1.14	0.59	2.02	43.9	41.2	36.3
전남	2.14	3.25	1.30	0.61	2.14	39.0	39.4	34.1
경북	2.14	3.24	1.16	0.55	2.03	45.9	45.3	37.4
경남	2.14	3.27	1.33	0.62	2.17	38.0	38.2	33.6
제주	2.20	3.44	1.34	0.61	2.39	39.2	38.6	30.5

출처 : 지해명(2003), MRIO 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관광지출승수의 누출구조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4권 제2호

[표 2-2] 지역별 관광산업의 누출구조

	전체	농림수산	음식료 담배	섬유가죽	도소매 음식 숙박	운수 보관	문화 오락	기타 서비스
서울	35.3	0.8	7.8	10.8	6.4	6.9	2.0	0.6
부산	41.8	1.4	8.8	13.2	6.2	9.2	2.2	0.8
대구	46.7	1.8	8.9	16.4	8.6	7.7	2.4	0.9
인천	46.5	1.0	8.6	14.2	8.1	11.3	2.5	0.8
광주	45.6	1.3	7.3	16.7	7.1	9.4	2.8	1.1
대전	45.9	1.6	5.9	18.2	8.0	8.3	2.9	1.1
경기	37.6	1.1	7.9	12.3	7.7	5.1	2.8	0.7
강원	43.9	1.2	7.1	15.3	8.0	8.5	2.9	1.0
충북	46.5	1.1	8.9	16.1	8.7	8.1	2.7	0.9
충남	47.4	1.0	9.9	15.6	8.2	9.2	2.6	0.9
전북	43.9	1.0	7.9	14.2	7.1	10.2	2.5	1.0
전남	39.0	0.7	6.2	12.1	4.4	12.5	2.2	0.8
경북	45.9	0.9	8.8	14.5	6.8	11.7	2.4	0.8
경남	38.0	0.8	7.4	13.1	5.9	8.0	2.0	0.7
제주	39.2	0.9	7.0	9.4	6.2	12.2	2.7	0.9
평균	42.8	1.1	7.9	14.1	7.1	9.3	2.5	0.9

출처 : 지해명(2003), MRIO 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관광지출승수의 누출구조 분석, 서울도시연구, 제4권 제2호

- 고태호(2006)은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분류체계에서 관광산업을 독립시키는 시도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9개 지역 가격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제주도 관광개발사업에 따른 관광소비 변화를 추정함
- 이 연구에서 관광산업을 기존의 산업인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문화오락서비스에서 추출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은 기존 산업 분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관광과 관련된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해 온 기존 관련 연구과의 차별성을 가지게 함

[표 2-3] 산업 분류

1. 농림, 수산, 광업	14. 운수 및 보관	
2. 음식료품	15. 통신 및 방송	
3. 섬유 및 종이	16. 금융 및 보험	
4. 석탄, 석유, 화학제품	17.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5. 유리 및 비금속광물	18. 공공행정 및 국방	
6. 철강제품	19. 교육 및 연구	
7. 기계, 전기, 전자, 정밀기기	20. 의료	
8. 자동차 및 수송기계	21. 사회 및 개인	
9. 기타 제조업	22. 기타	
10. 전력, 가스, 수도	관광 산업	23. 관광음식점 및 숙박
11. 건설		24. 관광 운수 및 보관
12. 도소매		25. 관광 문화오락서비스
13. 음식점 및 숙박		

출처 : 고태호 외 3인(2006), MRIO 모형을 이용한 관광수요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18권 제3호

- 고태호(2010)은 2006년 연구 결과를 확장하여 지역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2000년과 2003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 분석함

[표 2-4] 지역별 관광산업 생산성

	관광음식점 및 숙박		관광운수 및 보관		관광문화오락서비스	
	2000년	2003년	2000년	2003년	2000년	2003년
수도권	12.99	12.56	11.90	10.49	8.83	8.29
강원	15.15	14.53	12.65	11.06	10.10	9.26
충북	14.53	14.10	18.35	14.29	11.37	10.56
충남	15.36	14.80	17.64	13.59	10.95	10.03
전북	15.19	14.62	17.68	13.83	10.58	9.53
전남	15.15	14.58	15.70	12.58	10.60	9.60
경북	16.26	15.59	15.44	12.91	10.82	10.00
경남	15.14	14.65	12.51	10.45	11.14	10.51
제주	8.38	8.37	9.28	7.87	8.76	8.45
평균	14.24	13.76	14.57	11.90	10.35	9.58

출처 : 고태호 외 3인(2010), MRIO 모형을 통한 지역간 관광산업 경쟁력 비교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2호

[표 2-5] 지역별 관광산업 생산유발승수

	관광음식점 및 숙박		관광운수 및 보관		관광문화오락서비스	
	2000년	2003년	2000년	2003년	2000년	2003년
수도권	1.88	1.85	1.97	1.83	1.74	1.76
강원	1.47	1.49	1.31	1.34	1.35	1.44
충북	1.48	1.47	1.31	1.32	1.31	1.36
충남	1.57	1.56	1.37	1.37	1.40	1.45
전북	1.55	1.55	1.34	1.34	1.40	1.48
전남	1.61	1.60	1.61	1.55	1.45	1.50
경북	1.54	1.53	1.54	1.46	1.44	1.48
경남	1.66	1.64	1.83	1.75	1.45	1.48
제주	2.28	2.21	2.26	2.08	1.80	1.78
평균	1.67	1.66	1.62	1.56	1.48	1.53

출처 : 고태호 외 3인(2010), MRIO 모형을 통한 지역간 관광산업 경쟁력 비교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2호

- 고태호(2010)는 관광산업의 생산성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같은 양의 자원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은 관광산업의 생산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생산유발승수가 높을 경우에는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봄

-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북과 전북은 생산성이 높고 승수가 낮기 때문에 공급 중심의 정책, 즉 하드웨어 개발과 함께 산업구조 조성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주와 수도권은 이와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관광 수요 증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강욱(2009)는 한국은행의 다지역 산업연관표 상에 있는 산업 중 관광 핵심산업에 해당하는 산업(소분류 403부문 분류)들의 유발승수들을 도출하였고 이들 유발승수의 단순 평균값을 관광산업의 유발승수로 정의하였으며, 지역 내 승수와 타 지역 승수를 구분하여 결과를 제시함
- 관광산업 기준으로 지역 내 생산유발승수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1.324512이며, 경기(1.261778), 강원(1.243703), 부산(1.236775)의 순으로 분석됨
 - 반면, 타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대전으로 0.503541이며 인천(0.459015), 광주(0.457287), 충북(0.441511)의 순으로 나타남
- 취업유발승수는 자기 지역에서 높은 효과를 보인 지역은 광주로 0.029624이고 그 다음은 전북(0.028156), 전남(0.028023)순
 -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대전(0.004208), 광주(0.004208), 인천(0.004176)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 내 부가가치유발승수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0.735506)이고, 그 다음으로 서울(0.733749), 경남(0.721108), 경기(0.719404)순
 - 타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대전(0.207193), 인천(0.202884), 광주(0.191759)의 순으로 나타남

[표 2-6] 지역별 관광산업의 생산, 취업, 부가가치 유발승수(2005년 기준)

	생산		취업		부가가치	
	지역 내	타 지역	지역 내	타 지역	지역 내	타 지역
서울	1.324512	0.325949	0.017259	0.002868	0.733749	0.123041
부산	1.236775	0.386385	0.021296	0.003508	0.716237	0.159670
대구	1.224817	0.442146	0.024240	0.003931	0.708325	0.183499
인천	1.206125	0.459015	0.022160	0.004176	0.660868	0.202884
광주	1.189937	0.457287	0.029624	0.004208	0.707286	0.191759
대전	1.176974	0.503541	0.023757	0.004487	0.683049	0.207193
울산	1.208272	0.410140	0.020466	0.004136	0.686563	0.184638
경기	1.261778	0.393171	0.021460	0.003505	0.719404	0.170435
강원	1.243703	0.389869	0.026347	0.003059	0.735506	0.160652
충북	1.225777	0.441511	0.025539	0.003702	0.707917	0.185334
충남	1.223898	0.436670	0.024615	0.003960	0.685812	0.190669
전북	1.208874	0.441294	0.028156	0.003961	0.708577	0.187164
전남	1.236391	0.401659	0.028023	0.003833	0.685942	0.174757
경북	1.234423	0.426032	0.025452	0.003740	0.695318	0.182310
경남	1.239013	0.377783	0.026711	0.003462	0.721108	0.162693
제주	1.215730	0.437584	0.023891	0.003949	0.705270	0.182307

출처 : 이강욱(2009),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 사회계정행렬 활용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은 관광산업이 최종수요형 서비스산업이기 때문에 관광산업에 적용하기에는 부분적인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위성계정이 국내에서 연구되기 시작되기 전에는 사회계정행렬을 통해 관광산업 효과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존재함
- 사회계정행렬은 생산자간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산업연관표와 달리 생산자, 소비자, 정부, 금융 및 해외부문 등 경제 구성원들간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사회계정행렬에서 도출되는 유발승수는 산업 뿐만 아니라 생산과 수입, 가계와 생산 요소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산업간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춘 산업연관분석과 값보다 크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류광훈(2003)의 결과에서 보면 알 수 있음
- 류광훈(2003)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연관표를 통해 구한 관광산업의 승수는 전체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계정행렬의 경우에는 평균 대비 1.05배의 값을 보여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2-7] 생산유발승수 비교(산업연관분석 vs 사회계정행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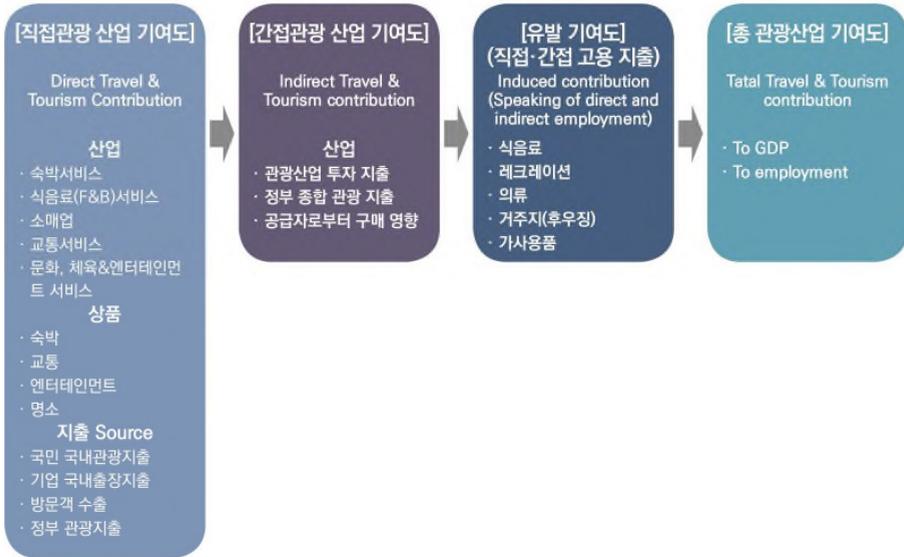
	산업연관분석			사회계정행렬		
	승수	순위	비율	승수	순위	비율
관광	1.72581		0.95	2.98329		1.05
숙박	1.56937	6	0.87	2.22242	6	0.78
식음료	2.01765	1	1.12	3.19012	1	1.12
여객운송	1.46564	7	0.81	2.99930	4	1.05
운수보조	1.28556	8	0.71	2.12192	7	0.74
여행업	1.57689	5	0.87	2.05358	8	0.72
문화공연	1.81337	2	1.00	3.12128	2	1.09
운동경기	1.62970	4	0.90	2.55774	5	0.90
오락유희	1.75193	3	0.97	3.04466	3	1.07
전체산업	1.80919		1.00	2.85093		1.00

출처 : 류광훈(2003), 관광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3. 관광위성계정 활용

-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관광위성계정과 지역관광위성계정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분석하는 지침을 준용하여 관광위성계정을 국내에서도 작성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임재영(2010)은 해외에서 관광위성계정을 개발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① 관광위성계정 TSA 작성의 필요성 공감 증대,
 - ② UN의 신 국민계정체계(SNA1993)에 부합한 TSA 작성기준 준수의 필요성
 - ③ 관련 국제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뉴얼 및 작성권고안에 입각하여 TSA 작업
 - ④ 자국의 환경을 반영한 TSA 작성과정의 유연성(flexibility) 강조
 - ⑤ 관광경제계정(TEA)에서 관광위성계정(TSA)으로의 진화
 - ⑥ 수요 측면의 데이터 기반 공급 측면 계정 작성
 - ⑦ 산업분류 및 상품분류기준의 조정과정 필요
 - ⑧ 국민계정 중 투입산출(IO)체계 내 공급-사용표의 적극적 활용 등
- 임재영(2012)은 2010년 기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였고 16개 광역시도의 관광부가가치를 추계하는 분석을 시도함
 - 그 결과,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경제 차원에서 관광 부가가치는 총 10조 6,111억6원이 창출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1.2%에 해당되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제주도의 지역내 관광 GRDP가 지역경제내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여 두 지역에서는 관광이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관광고용의 추계 결과 역시 강원도와 제주도 두 지역의 경우 관광고용이 지역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9% 와 12.1%로 전국 평균의 2.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임재영(2012)은 관광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이고 평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관광고용 비중이 관광 부가가치 비중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판단함
 - 장광민(2016)은 관광위성계정을 통해 관광 GDP 기여도를 산출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의 관광 GDP는 직접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간접 관광산업과 유발산업 파급효과까지 포함한 광의 개념의 관광 GDP를 추정함



출처 : 장광민 외 1인(2016), 관광위성계정(TSA)에 따른 관광GDP 기여도 산출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9권 9호

[그림 2-1] 관광GDP 기여도 산출 절차

- 관광위성계정 항목에 따라 관련 항목을 산출하여 크게 직접과 간접, 유발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부문별 기여도 산정에 반영함
 - 직접기여도, 간접기여도, 유발기여도, 총기여도(직접기여도 + 간접기여도 + 유발 기여도) 4가지로 구분하여 관광산업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기여도의 최종값인 관광GDP 기여도를 산출
 - GDP 대비 관광산업 직접기여도는 관광객과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의미하며 관광제공자로부터 지출액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입된 국산 및 수입 공급 구매부분을 제외한 합계로 산출
 - 간접관광 산업기여도는 관광분야 민간과 정부의 산업에 투자 대한 부분과 산업부문의 중간재 투입의 합으로 산출되며 유발기여도는 종사원의 관광부문 소비지출로 구성
 - 이러한 소비와 공급측면에서 발생하는 간접 및 유발효과를 더하여 관광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총 관광GDP 기여도를 도출하게 된

- 장광민(2016)의 분석 결과, 관광산업의 GDP 총기여도는 2016년에는 2010년 비해 약 24.5% 증가한 반면 관광산업 GDP 총기여도 비중은 5년 동안 큰 변화(5.3%→5.1%)가 없었으며, 고용 총기여도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2-8] 한국 관광산업 연도별 기여도

항 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GDP 총기여도	십억원	66,721	63,262	70,363	74,226	77,457	78,722	83,014
	GDP 대비 %	5.3	4.7	5.1	5.2	5.2	5.1	5.1
고용 총기여도	고용(천명)	1,341	1,246	1,368	1,417	1,458	1,444	1,528
	전체 대비 %	5.6	5.1	5.5	5.7	5.7	5.6	5.8

출처 : 장광민 외 1인(2016), 관광위성계정(TSA)에 따른 관광GDP 기여도 산출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9권 9호

4. 빅데이터 활용

- 관광분야에서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관광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행태 파악을 위한 다양한 조사 및 연구에서 시의성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시의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행태 분석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관광 환경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관광분야 빅데이터는 정보와 데이터 독점의 문제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등의 법체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로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표 2-9] 관광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분석

기관	사업명	분석 도구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 빅데이터 위치기반 융복합을 통한 제주 관광객 패턴분석 연구	통신 카드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제주관광 패턴분석 및 관광객 이동패턴 분석을 통한 도민 체감효과를 분석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전략센터	- 빅데이터 분석 기반 외국인 관광산업 지원	통신 카드	- 내외국인 관광 소비패턴, 중국인 관광 추세를 분석하여 맞춤형 관광정보, 관광지 추천 정보 제공
전주시 (전라북도)	- 전주한옥마을 빅데이터 관광정책 분석	통신 카드 키워드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주한옥마을 내외국인 관광객 유동인구 이동범위를 파악하여 전북연계 관광지 발굴
한국관광공사	- 2013년 문화관광 축제를 중심으로	통신 카드 키워드	- 유동인구 변동분석, 매출변동분석, 소셜 데이터 활용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축제 관련 관광 행태와 특성을 파악

출처 : 권태일 외 1인(2017), 관광분야 빅데이터 활용체계 및 실증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에 권태일(2017)은 관광분야의 기존 조사통계에 대한 보완과 더불어 시의성과 객관성을 갖춘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빅데이터의 종합적 활용 및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시도를 함

제2절 관광위성계정의 개념

1. 국민계정

-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중 국민경제 구성원의 경제 활동에 따른 결과물과 특정 시점에 누적된 국민경제 구성원의 자산 및 부채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국민경제의 순환 현황을 계정 양식에 맞춰 종합적으로 기록한 종합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음
- 국민계정은 국가 단위에서 실물자산과 노동이 결합되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어떻게 소비되거나 투자되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와 ‘국민대차대조표’ 등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를 상호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편제한 종합계정임

[표 2-10]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5대 국민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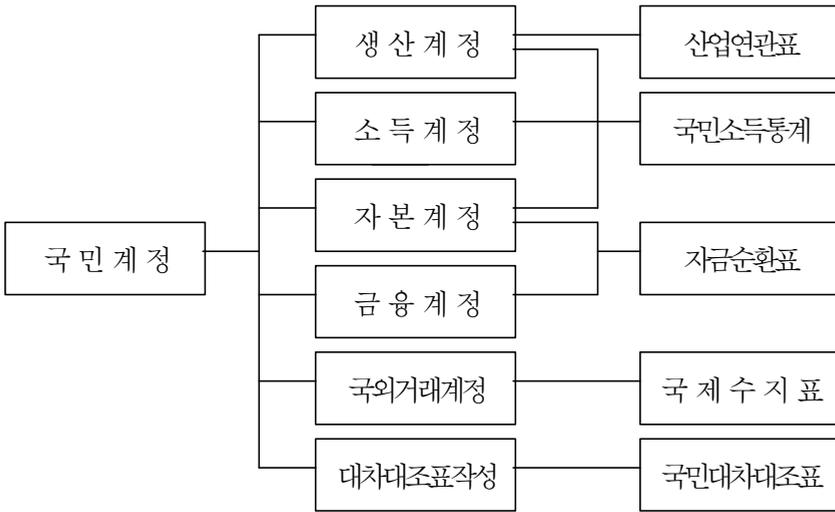
구 분	수 록 내 용	비 고
국민소득통계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국민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어 어떻게 처분되는가(Flow 개념)	국민경제의 손익계산서 (실물흐름 중심)
산업연관표	특정 상품의 생산을 위해 어떤 상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얼마나 투입되는가(Flow 개념)	국민경제의 제조원가 명세서 (실물흐름 중심)
자금순환표	자금의 흐름을 실물과 금융 양 측면에서 기록	국민경제의 현금 흐름표
국제수지표	국민경제가 국외 경제와 거래한 실물 및 자금의 수취와 지급 내역 기록(Flow 개념)	외화수지계산서
국민대차대조표	일정 시점에서 국민경제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과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모두 기록 (Stock 개념)	국민경제의 대차대조표

출처 : 한국은행(2004),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 기존의 5대 국민경제통계는 이론과 작성방법 면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작성기준과 체계도 서로 상이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파악

하기 어려워 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국민계정이 작성됨

- 즉 국민계정은 국민소득통계를 중심으로 5대 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국민경제 전반의 재화와 서비스 거래 현황 및 자금 흐름 동향을 기록한 것임



[그림 2-2] 국민계정체계와 5대 국민경제통계

- 지역의 경제효과를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산업연관표의 경우, 산업간의 관계만을 고려하는 생산계정에서 도출되는 자료로 지역 소득이나 지방 재정 증가 효과 등을 계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경제효과의 원인이 되는 사업의 결과물이 산업의 최종재가 아닐 경우에는 계산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 5개의 통계자료가 주축이 되는 국민경제에 부속표를 달거나 확장하는 형식의 위성계정이 작성되고 있음

2. 위성계정

- 국민계정체계에서는 관광과 환경 같은 특정 측면들의 범주와 개념이 정확히 적용되어 반영되고 있지 않는 한계점이 있어 국민계정의 중심체계에 추가적 또는 상이한 측면들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계정의 분석능력을 확대한 위성계정 또는 위성체계가 개발됨
- 즉, 위성계정은 특정분야 및 주제에 특화된 정보체계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위성계정과 관광위성계정을 들 수 있음
- 위성계정은 연구자의 관심분야에 대한 분석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신축적인 방법으로 작성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여러 분야의 위성계정과 연결하여 상호간의 분석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즉, 위성계정은 국민계정을 기본으로 하면서 기본 구조를 통해 특화된 분야와 연계된 확장된 계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위성계정을 이용한 분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첫 번째 유형은 국민계정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분류체계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 관광, 환경 등과 같은 특정 분야와 관련된 위성계정 작성에 적용됨
- 두 번째 유형은 국민계정체계의 개념과는 대체되는 개념에서 시작하여 국민계정과 상이한 생산 범위, 소비 및 자연자산 등을 포함한 고정자본 자산범위 등을 도입하여 분석하는 유형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현행 국민계정 체계에서보다 더 자유롭게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 적용이 가능하며 경제 분석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음
- 기능적 관점에 보다 역점을 두어 관광, 문화, 교육, 보건, 사회보장, 환경보호, 연구개발 등 화폐로 정량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활용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정형화된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3. 관광위성계정

1) 작성 배경 및 목적

□ 작성 배경

- 관광위성계정은 기존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확연하게 구분할 수 없었던 관광 분야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부속계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관광활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결과는 국민계정 내에 반영되어 있지만 국내외적으로 관광산업의 특성상 타 산업 부문과 구분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국민계정 상에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상황임
- 즉, 관광객의 지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이미 다른 산업의 결과물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계량화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국민계정을 기초로 하여 관광산업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관광위성계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내외적으로 관광위성계정의 작성을 권고하고 있음

[표 2-11] 관광위성계정에 대한 개념적 정의

구분	내용
세계관광기구 (UNWTO, 1999)	- 관광위성계정은 관광분야 전반에 걸친 경제적 크기 및 수요와 공급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 논리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작성된 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998)	- 관광위성계정은 관광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관광경제와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분석 및 관광산업의 성장과 생산성 분석, 경제모형 설정 등을 위한 기본적 틀을 제공
세계관광여행협회 (WTTTC, 1998)	- 관광위성계정은 여행 전과 여행 중, 그리고 여행 후에 여행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금 및 자본의 지출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개인, 기업, 정부 그리고 대외부문 등 경제주체의 여행과 연계된 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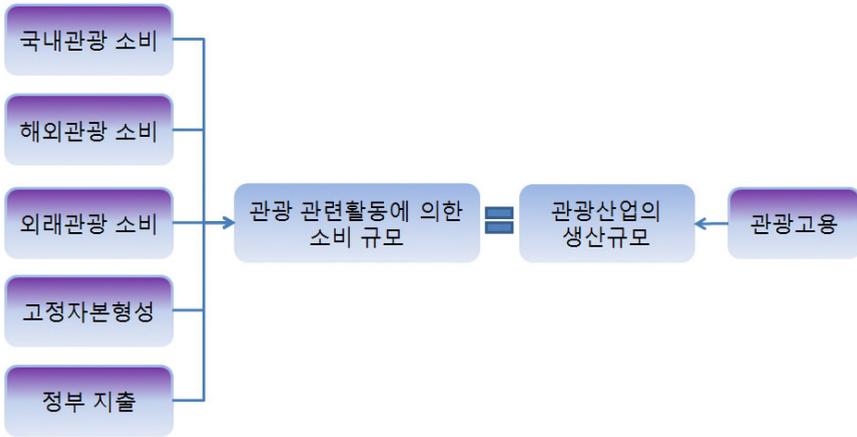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8년 기준 한국 관광위성계정

□ 작성 목적

- 관광위성계정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의해 작성되고 있음
 - ① 관광통계작성 관련 국제기구 권고사항과 국민계정체계 제원칙에 입각한 자료 생산
 - ② 국민계정체계 내에서 국제간 비교가능한 계정 제시
 - ③ 경제적 측면에서 관광의 효과 분석
 - ④ 정책결정자들에게 관광의 사회 경제적 기능 및 제영향에 대한 통찰력 제공
 - ⑤ 관광부가가치(tourism value-added)의 추계
 - ⑥ 관광산업의 고용에 관한 정보 제공
 - ⑦ 관광산업의 생산기능 및 관광산업과 타 경제부문과의 관계 제시
 - ⑧ 관광투자와 생산 사이의 관계 분석을 위한 수단 제공
 - ⑨ 관광산업의 자본관련(capital vase) 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 ⑩ 관광분석모형의 기본 틀 제공

□ 기본 구조

- 관광위성계정은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수요 측면은 관광객의 소비활동, 정부의 관광관련 투자 그리고 고정자본 형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관광객의 소비활동은 국내인의 국내, 해외 관광과 외국인의 국내관광활동으로 나눌 수 있음
- 공급 측면은 산업 측면에서 관광 관련 고용 투입에 따라 발생하는 관광 재화 및 서비스의 규모로 파악할 수 있음
- 관광위성계정의 기본구조는 경제 내에서 관광상품 및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일반균형체계(general equilibrium frame work)를 기초로 함
- 또한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요소 특히 고용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제공 하여 관광산업의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함



[표 2-12] <관광위성계정 개념도>

2) 관련 개념 정의

(1) 수요 측면

□ 방문객(관광객)

- 관광위성계정에서 관광 관련 소비의 주체는 방문객(관광객)으로 이들의 소비 활동에 초점을 맞춰 관련된 생산활동을 규명하는 것이 관광위성계정의 핵심임
- 즉, 방문객(관광객)이 관광소비의 주체이며 이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은 관광 부가가치 및 관광 GDP로 연결됨
- 관광은 관광객의 이동을 전제하고 이동의 기준을 일상생활권을 벗어났는지의 유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여행객을 제외한 경우를 일반적으로 관광객이라고 지칭함
 - 일상 거주지와 직장 또는 학교를 정기적으로 통근 또는 통학하는 여행객
 - 현재의 생활 속에서 친구, 친척집, 쇼핑센터, 종교시설, 보건시설 및 여타시설 등 상당히 먼 거리에 있거나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혹은 빈번히 방문하는 여행객
 - 일상 거주지가 아닌 방문국가에서 단기 근무계약을 통해 고용된 여행객(호텔, 식당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계절성 근로자 등)

□ 관광소비(Visitor consumption)

- 관광소비는 국민계정체계의 최종수요에 포함되는 용어로 여행전·여행중·여행후 발생하는 방문객들에 의한 재화와 서비스의 모든 소비지출을 의미하며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됨
- 일반적으로 관광소비는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난 방문객(관광객)의 지출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권 내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예로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항공권 구입은 방문객(관광객)의 일상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관광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광소비가 발생한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표 2-13] 관광소비 발생 지역 구분

비용 항목	소비 발생지역	비용 항목	소비 발생지역
패키지비	거주지	운동 및 경기비	여행지
숙박비	여행지	오락서비스비	여행지
식음료비	여행지	기념품 및 쇼핑비	여행지
교통비 및 자동차 임대비	거주지/여행지 각 1/2 적용	여행보험비	거주지
여행사지불비	거주지	장비임대비	여행지
문화서비스비	여행지	기타 비용	거주지/여행지 각 1/2 적용

출처 : 임재영 외 1인(2012), 지역 TSA 작성을 통한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 지역의 관광부가가치(TVA) 추계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24권 제2호

-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광소비를 분류하면 크게 ‘국민 국내관광소비’와 ‘국민해외관광소비’, 그리고 ‘외국인국내관광소비’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14] 관광소비 분류

구분	내용
국민국내관광소비 (A)	-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국내 관광활동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소비활동 - 이러한 소비활동에는 해외에서 생산, 수입되었거나 비거주인 국내의 해외국적자에 의해 생산되어 국내경제에서 판매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함
국민해외관광소비 (B)	-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 외에서 발생시키는 소비활동 - 관광객의 거주국에서 생산되고 여행을 위해 구매된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며 국제적 교통수단에 대한 구매는 운수회사의 거주지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함
외국인 국내관광소비 (C)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활동 - 외국인 관광객에 의해 구매된 제품 및 서비스는 수입품일 수도 있음
국내관광소비 (D=A+C)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소비로서 거주민 외에 비거주인 외국 관광객 모두에 의한 관광소비를 뜻함 - 국내 국민관광 + 외국인 국내관광
국민관광소비 (E=A+B)	- 장소에 상관없이 내국인 방문객에 의한 총관광소비임 - 이러한 구매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 국내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수입품, 외국인공급자로부터 구입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함 - 국내 국민관광 + 내국인 해외관광

출처 : 문화관광부-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5)

□ 관광고정자본형성

○ 관광에서 총고정자본형성은 교통, 숙박, 여가 등과 관련된 기반시설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 관광상품을 생산하는 고정자산(Tourism specific produced fixed assets): 관광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구성된 자산
- ② 비관광부문의 유형고정자산 중 관광산업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 (Investment by the tourism industries in non specific tangible fixed asset): 호텔예약시스템 및 세탁소 등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관광과 관련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
- ③ 기반시설(infrastructure):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투자(공항, 도로, 전력, 통신 등)

(2) 공급 측면

□ 관광상품

- 공급 측면의 한 요소인 관광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① 관광핵심상품(characteristic goods and services)
 - ② 관광관련상품(connected goods and services)
- 관광위성계정에서는 방문객(관광객)의 재화와 서비스 소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관광상품에서 자본재와 비시장재인 관광공공서비스는 제외
- 또한 여객운송업과 관광개발을 위한 관광건설링 서비스와 같이 방문객들이 직접 소비하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 또한 관광상품에서 제외

[표 2-15] 관광위성계정의 관광상품 분류와 내용

상 품	활 동
A. 소비 상품	
A.1 관광핵심상품	
1. 방문객을 위한 숙박 서비스	1. 숙박시설
1.a 1.b 이외의 방문객 숙박 서비스	1.a 1.b 이외의 방문객 숙박
1.b 모든 종류의 휴가, 별장 소유권고 관련된 숙박서비스	1.b 모든 종류의 휴가 별장 소유권과 관련된 숙박 서비스
2. 식음료 제공 서비스	2. 식음료 제공 산업
3. 철도 운송 서비스	3. 철도 운송
4. 도로 운송 서비스	4. 도로 운송
5. 수상 운송 서비스	5. 수상 운송
6. 항공 운송 서비스	6. 항공 운송
7. 운송 장비 임대 서비스	7. 운송 장비 대여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 서비스	8. 여행사 및 기타 예약 서비스 호라등
9. 문화 서비스	9. 문화 활동
10.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	10. 스포츠 및 여가 활동
11. 국가별 관광핵심상품	11. 국가별 관광핵심상품의 소매
12. 국가별 관광핵심서비스	12. 국가별 관광핵심활동
A.2 관광연계상품	
A.3 비관광 관련 소비 상품	
B. 비소비 상품	
B.1 귀중품	
B.2 기타 비소비 상품	

출처 : 이강욱(2015),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광생산활동

- 관광생산활동은 관광핵심상품을 생산하는 생산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관광핵심상품은 방문객들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즉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공급자와 판매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관계가 존재함
- 하지만 재화의 경우에는 그의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단계가 개입되기 때문에 관광핵심상품보다는 관광관련상품으로 보는 경우가 존재함
- 정리하면 관광핵심상품의 생산활동은 관광핵심상품의 주요 산출물을 생산하는 활동이며 관광핵심생산활동은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직접적인 판매와 구매가 동시에 일어나는 직접적인 접촉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핵심 생산활동			관광관련 생산활동			관광주변 생산활동			국내 관광 소비분석에 초점
	주산출물	부가산출물		주산출물	부가산출물		주산출물	부가산출물		
품목별 공급대상	핵심 상품	관련 상품	주변 상품	관련 상품	핵심 상품	주변 상품	주변 상품	핵심 상품	관련 상품	
방문객										
비방문객										
	관광공급분석에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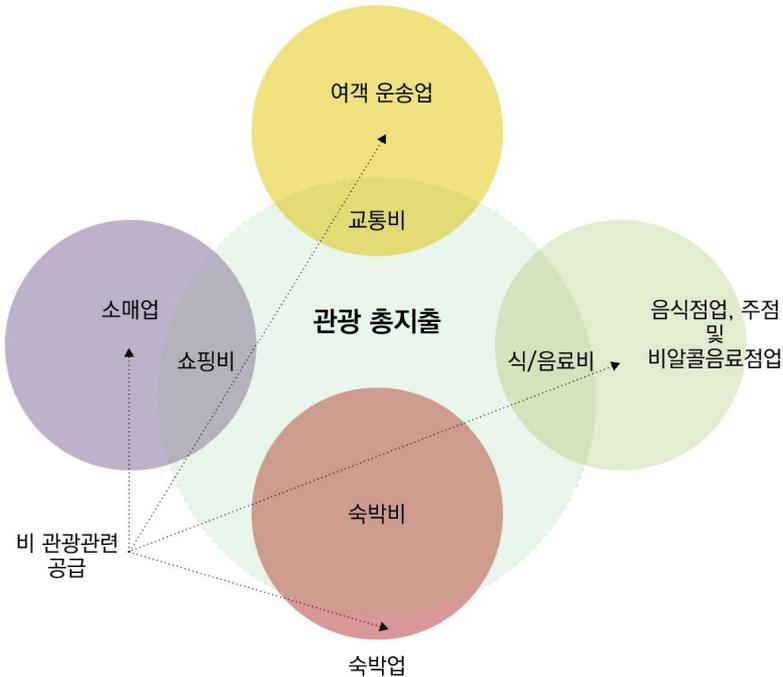
출처 : 임재영(2010), 관광위성계정(TSA)은 무엇인가, 충남논단

[그림 2-3] 관광 공급과 소비 분석 구조

□ 관광산업

- 관광산업은 국민계정체계에서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따라 산업이 분류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의 소비시점의 용도에 따라 분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즉, 관광산업은 수요를 바탕으로 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서비스의 생산과정과 전달경로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음식업에서 제공되는 제와 및 서비스 가운데 관광객에 의해 소비되는 재화 및 서비스만이 관광산업에 포함됨
- 따라서 관광산업은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관광산업에서 발생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규모는 관광객 수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수요와 생산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관광객수에 의해 관광산업의 생산액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관광산업은 최종수요형산업으로 관광생산물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은 거의 없고 대부분 최종수요로 소비됨
 - 관광서비스는 생산요소들이 수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조합되어 생산되며, 비경제적인 생산요소(문화, 경관)의 투입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크게 작용함



출처 : 산업연구원(2016), 관광산업 통계기반 개선사업 연구

[그림 2-4] 관광지출에 따른 관광산업의 범위

- 2012년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관광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체계를 갖 추지 못하고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의 관광산업분류 권고안과 세계관광기구가 작성한 관광활동 국제표준분류를 근거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따로 제시하였음
- 2012년 이후, 문화관광부는 수요와 공급 측면을 고려한 분류 체계에 따라 4개 영역별로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재구축함
- 여기에는 IRTS 2008,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 4.0), 중심생산물분류(CPC Ver. 2) 등을 참고하여 관광산업을 주로 수요측면에서 분류하면서 추가적으로 공급측면(시설)을 고려한 분류체계를 작성함
- 분류체계의 구조로는 핵심관광산업, 상호의존관광산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지원산업 등 총 4부문으로 구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2단계(3자리), 3단계(5자리), 4단계(7자리)로 구성함
 - 핵심 관광산업
 - 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카지노업을 포함하며, 주로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관광산업을 포함
 - 상호의존 관광산업
 - 원래 관광산업은 아니지만 핵심관광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동반되는 산업으로 관광 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 금융 및 보험업, 레저장비업을 포함
 - 부분적용 관광산업
 - 부분적으로 관광객에 의존하는 산업으로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을 포함
 - 관광 지원산업
 -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문으로 관광관련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관광 교육서비스업, 관광단체를 포함

- 여기에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체를 포함하되, 이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음

[표 2-16] 관광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핵심 관광산업	관광 쇼핑업 (도매업 제외)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 관광 인증 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철도운송업, 관광 도로운송업, 관광 수상운송업, 관광 항공운송업
	관광 숙박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광 펜션업, 일반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관광 식당업, 관광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여행업,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 기획업, 국제회의 시설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유원시설업, 농어촌 체험 및 생태 관광업 관광 공연장업 관광 레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카지노업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
상호의존 관광산업	관광 건설업	관광 건물종합건설업, 고나광 토목건설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레저용 의복 소매업, 레저 및 스포츠용품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관광용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관광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	여행자 보험업, 금융서비스업
	레저장비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레저 및 운송장비 임대업, 자동차 임대업
부분적용 관광산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	관광 비인증 쇼핑업
	부분관광 운송업	부분관광 육상운송업, 부분관광 수상운송업
	부분관광 숙박업	청소년수련원, 관광 비인증 모텔업
	부분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부분관광 음식점업, 부분관광 주점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공연장업
	부분관광 기타 서비스업	관광 정보 서비스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기타 관광 서비스업
관광 지원산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연구 개발업
	관광 공공기관	문화 및 관광행정, 관세행정, 외무 행정(비자발급 및 영사업무), 특수경찰 및 공항경비
	관광 교육서비스업	교육기관, 기타 관광 레저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관광 단체	회원단체, 관광관련 국내외 기관

□ 관광부가가치

- 생산활동의 경제적 중요성은 부가가치(value-added)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value added of tourism industries)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계산할 수 있음
- 첫 번째 방법은 개별 세부적 관광핵심산업의 부가가치를 합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임
- 두 번째 방법은 관광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그들의 공급 사이의 직접적 연결고리(link)에서 발생하는 소비 지출 규모가 산업간 연관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두 합한 값을 부가가치로 추정하는 방법임
- 전자의 방법은 관광부가가치(tourism value added)는 국내관광소비(internal tourism consumption)에 대응하는 관광산업 및 기타산업들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로 정의할 경우 사용가능함
- 후자의 방법은 관광부가가치의 범위를 방문객 또는 잠재적 방문객들에게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정에서 모든 산업들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율까지 포함할 경우 사용하기 적절함
- 전자의 방법은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이 방문객들을 위해 기여하는 다른 여타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후자는 방문객(관광객)의 상품 소비에 대응하는 부가가치가 아닌 최종수요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직간접 효과를 모두 포함한 값으로 과다 추정의 우려가 존재함

□ 관광 GDP

- 국민경제의 GDP는 모든 생산활동 부문들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총합에 생산 및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조세(net taxes)를 더하여 구할 수 있음
-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방문객(관광객)에 의해 창출되는 GDP, 관광 GDP에 대한 정의도 내릴 수 있음

- 관광 GDP는 국내관광소비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물 및 수입에 부과되는 순조세(net taxes)의 양에 대응하는 모든 산업부문에 의해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17] 관광 GDP 기여도 세부 산출 방법(WTTC 기준)

구 분		내 용
수요	국제관광 소비지출	-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국내 경제 지출로서, 개별 및 비즈니스 외국인 관광객 지출로 구분하며, 교육여행(유학 등)은 제외 - 소비지출액 추계는 별도의 예측 작업 실시
	개인소비	- 관광위성계정 자료를 활용 (음식/음료, 의류/신발, 총 임대료/전력, 가구, 의료 및 건강, 운송 및 통신, 레크레이션/오락/문화, 잡화서비스)
	정부 비즈니스 여행	- 관광위성계정 자료를 활용
	민간 비즈니스 여행	- 항공, 숙박, 렌트카, 음식, 기타여행, 오락 등으로 구분
	정부지출	- 지방 및 지역 정부 지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부 지출을 포함 - 관광 홍보, 관광객 정보 서비스, 행정 서비스, 다른 공공 서비스를 포괄
공급		- 수요 부문 비율을 산업연관표에 반영하여 공급규모 산정 - 비율은 각 산업의 산출량르 여행 및 관광수요의 구성요소와 연계
투자	정부 투자	- 정부의 관광부문 투자(장비, 건물, 토지, 인프라 등을 위한 정부 지출) - 다용도 목적 투자는 미포함(도로 등)
	민간 투자	- 별장, 호텔, 모텔, 컨벤션센터 등 건축물에 대한 투자 -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
유발 효과	총사자 소비	- 승수 추정치 및 일반 경제 생산성 추정치에 대한 자체 모델을 활용하여 간접효과 추정

출처 : 장광민 외 1인(2016), 관광위성계정(TSA)에 따른 관광GDP 기여도 산출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9권 9호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value added of tourism industries)와 관광부가가치(Tourism value added), 그리고 관광GDP(Tourism GDP)에 대한 설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8] 공급 측면에서 관광의 규모 결정 지표들 사이의 관계

구분			관광산업 부가가치	관광 부가가치	관광 GDP
항 목	생산 주체	공급 대상			
부가가치	관광산업	방문객	○	○	○
		비방문객	○	×	×
	비관광산업	방문객	×	○	○
		비방문객	×	×	×
순 조세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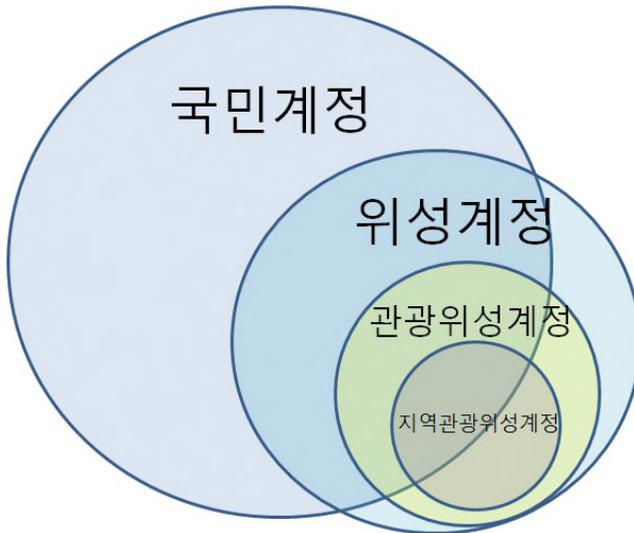
출처 : 임재영(2010), 관광위성계정(TSA)은 무엇인가, 충남논단

-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란 그 산업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관광객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이미 관광산업 또는 관광핵심 산업으로 규정된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전체를 의미하는 개념임
- 관광 부가가치는 당해 산업이 관광산업으로 규정된 것과는 별개로 개별 산업부문에서 방문객(관광객)을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출된 부가가치만으로 한정된 개념임
- 관광 GDP는 산업별로 구해지는 관광 부가가치의 합으로 계산됨
- 이러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와 관광 부가가치의 개념을 고용 측면에 적용했을 때 방문객(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 창출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고용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4. 지역관광위성계정

- 관광위성계정은 국가단위에서의 국민경제를 기준으로 관광의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가 단위의 관광위성계정(national TSA)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지역관광위성계정은 지역을 단위로 지역간 거래가 추가된 계정임

- 수요 측면에서 관광객들의 거주지역과 관광 대상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역간 관광거래표가 작성되어야 함
- 공급측면에서도 관광상품을 생산하는 관광산업의 생산활동에 지역 내 생산 중간재 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부터 이입되는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됨
- 따라서 지역관광위성계정은 지역산업연관표에서의 중간투입물의 지역 간 이동 뿐만 아니라 방문객(관광객)의 지역간 거래가 존재하며 이러한 지역간 거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지역관광산업의 규모 및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즉, 지역의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관광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거래를 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그림 2-5] 계정간 관계도

3

장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Jeonbuk Institute

제1절 국민여행 실태조사 원자료 검토

제2절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제3장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제1절 국민여행 실태조사 원자료 검토¹⁾

1. 전국 단위

□ 여행 총량 측면

-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여행은 행정구역상 현 거주지(일상생활)을 벗어나 다른 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지역 구분은 시/군 단위에서 정의됨²⁾
 - 단순 영화감상이나 쇼핑만을 목적으로 행정구역을 벗어나거나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여가활동의 경우에는 국내 여행에서 제외함
-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통해 추정된 국내 여행 총 참가 횟수는 2011년 1억 5,659만 회에서 2017년 2억 8497만 회로 연 평균 10.5%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숙박여행³⁾의 경우 2011년 7,162만 회에서 2017년 1억 1,278만 회로 연 평균 7.6% 증가한 반면, 당일여행은 2011년 1억 2,180만 회에서 2017년 1억 7,218만 회로 연 평균 12.5%씩 증가하여 당일여행의 증가가 더 큼
- 관광여행⁴⁾의 총 참가 횟수는 2011년 7,522만 회에서 2017년 1억 3,096만 회로 연 평균 9.7%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 분석 대상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이 중 국내여행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지역 관광산업의 규모 및 효과 추정에 있기 때문에 국민이 해외로 나가 지출하는 것은 국내 여행을 제외한 관광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은 제외함

2)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

3) 집에서 출발한 후 여행지에서 여행 당일 자정을 넘기면 숙박 여부에 관계없이 숙박여행으로 분류하며, 자정을 넘기지 않은 24시간 미만의 여행은 당일여행으로 분류함

4)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 정의하는 '관광여행'은 여행의 주된 목적이 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타여행'은 가족/친척/친구 방문, 교육/훈련/연수, 쇼핑, 사업 및 전문활동/업무상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임

- 관광여행의 숙박여행은 연 평균 8.0%씩 증가, 당일여행은 11.0%씩 증가하는 추세임
- 기타여행의 총 참가 횟수는 2011년 8,138만 회에서 2017년 1억 5,401만 회로 연 평균 11.2%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기타여행의 숙박여행은 연 평균 7.7%씩 증가, 당일여행은 13.8%씩 증가하는 추세임
- 전반적으로 국내여행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 목적보다는 기타 목적의 여행 증가 폭이 더 크며, 장기간의 숙박 여행보다는 당일 여행의 증가 폭이 더 큼
- KTX 및 고속도로 노선의 확장 등으로 지역간의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장거리 당일 여행의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표 3-1] 여행 유형별 여행 참가 횟수

(단위: 천회)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국내여행	156,594	213,468	231,035	227,815	238,297	241,750	284,966	10.49%
숙박	71,622	92,289	99,667	98,069	99,776	101,068	112,784	7.86%
당일	84,972	121,180	131,368	129,746	138,522	140,682	172,182	12.49%
관광여행	75,219	98,261	110,941	108,941	115,331	117,685	130,952	9.68%
숙박	34,405	42,714	47,495	47,411	50,013	50,994	54,716	8.04%
당일	40,814	55,547	63,445	61,530	65,318	66,691	76,236	10.97%
기타여행	81,375	115,207	120,094	118,875	122,966	124,065	154,014	11.22%
숙박	37,218	49,574	52,171	50,658	49,762	50,074	58,069	7.70%
당일	44,158	65,633	67,923	68,216	73,204	73,991	95,946	13.81%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 이동 총량⁵⁾ 측면에서 국내여행은 2011년 2억 8,695일에서 2017년 4억 7,967일로 연 평균 8.9%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숙박여행은 2011년 2억 198일에서 2017년 3억 749일로 연 평균 7.3% 증가함

5) 이동 총량은 참가 횟수에 여행 일수를 가중 적용한 값으로 총 여행일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 관광여행의 이동 총량은 2011년 1억 3,281만일에서 2017년 2억 2,139만일로 연 평균 8.9% 증가하였고, 기타여행의 이동 총량은 1억 5,414만일에서 2억 5,828만일로 9.0% 증가함

[표 3-2] 여행 유형별 이동 총량

(단위: 천일)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국내여행	286,948	365,282	389,220	398,308	406,819	412,378	479,674	8.94%
숙박	201,976	244,102	257,852	268,562	268,297	271,696	307,492	7.26%
당일	84,972	121,180	131,368	129,746	138,522	140,682	172,182	12.49%
관광여행	132,813	166,347	185,333	191,072	197,826	201,805	221,394	8.89%
숙박	91,999	110,800	121,888	129,542	132,508	135,114	145,158	7.90%
당일	40,814	55,547	63,445	61,530	65,318	66,691	76,236	10.97%
기타여행	154,135	198,935	203,887	207,236	208,993	210,573	258,280	8.98%
숙박	109,977	133,302	135,964	139,020	135,789	136,582	162,334	6.70%
당일	44,158	65,633	67,923	68,216	73,204	73,991	95,946	13.81%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 이동 총량 측면에서는 관광여행과 기타여행이 비슷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타여행의 숙박여행 평균 여행 일수가 관광여행 평균 여행 일수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실제로 국내여행의 평균 여행 일수는 2011년 2.82일에서 2017년 2.73일로 0.09일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기타여행의 경우 2011년 대비 2017년의 여행 일수는 0.16일 감소함
- 여행 참가 횟수 증가에 불구하고 숙박여행을 통한 체류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함

[표 3-3] 여행 유형별 평균 여행 일수(숙박여행만)

(단위: 일)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변화량
국내여행	2.82	2.64	2.59	2.74	2.69	2.69	2.73	-0.09
관광여행	2.67	2.59	2.57	2.73	2.65	2.65	2.65	-0.02
기타여행	2.95	2.69	2.61	2.74	2.73	2.73	2.80	-0.16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 여행 비용 측면

- 국내여행을 통해 지출된 총 비용은 2011년 20.2조원에서 2017년 29.5조원으로 연 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숙박여행은 5.6% 증가, 당일여행은 8.4%씩 증가함
- 관광여행의 경우 2011년 11.3조원에서 2017년 17.2조원으로 연 평균 7.3%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숙박여행과 당일여행 모두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앞서 본 참가횟수나 이동 총량 측면에서 관광여행보다 기타여행의 증가율이 더 컸던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관광여행의 지출 비용 증가율이 더 크다는 점에서 관광여행 확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과제를 시사함

[표 3-4] 여행 유형별 여행 비용

(단위: 십억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국내여행	20,205	23,891	23,234	24,939	25,396	25,748	29,456	6.48%
숙박	13,850	15,792	15,479	16,848	16,983	17,204	19,171	5.57%
당일	6,355	8,099	7,755	8,091	8,413	8,544	10,285	8.35%
관광여행	11,272	13,603	14,288	14,445	15,161	15,383	17,166	7.26%
숙박	8,386	9,840	10,164	10,677	11,130	11,288	12,597	7.02%
당일	2,886	3,763	4,125	3,768	4,031	4,096	4,568	7.95%
기타여행	8,933	10,288	8,946	10,494	10,235	10,365	12,290	5.46%
숙박	5,464	5,952	5,315	6,172	5,853	5,916	6,574	3.13%
당일	3,469	4,336	3,631	4,323	4,382	4,449	5,716	8.68%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 하지만, 여행 횟수당 평균 여행 비용을 보면, 국내 여행은 여행 1회당 지출 비용이 2011년 12.9만원에서 2017년 10.3만원으로 3.6%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를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행 1일당 평균 여행 비용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 1일 평균 7.0만원에서 2017년 6.1만원으로 감소함

- 따라서, 이제는 관광객 유치 효과가 금전적인 측면에서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효과를 금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음

[표 3-5] 여행 유형별 여행 횟수당 여행 비용

(단위: 천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국내여행	129.0	111.9	100.6	109.5	106.6	106.5	103.4	-3.63%
숙박	193.4	171.1	155.3	171.8	170.2	170.2	170.0	-2.13%
당일	74.8	66.8	59.0	62.4	60.7	60.7	59.7	-3.68%
관광여행	149.9	138.4	128.8	132.6	131.5	130.7	131.1	-2.21%
숙박	243.7	230.4	214.0	225.2	222.5	221.4	230.2	-0.95%
당일	70.7	67.7	65.0	61.2	61.7	61.4	59.9	-2.72%
기타여행	109.8	89.3	74.5	88.3	83.2	83.5	79.8	-5.18%
숙박	146.8	120.1	101.9	121.8	117.6	118.2	113.2	-4.24%
당일	78.6	66.1	53.5	63.4	59.9	60.1	59.6	-4.50%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표 3-6] 여행 유형별 여행 일수당 여행 비용

(단위: 천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국내여행	70.4	65.4	59.7	62.6	62.4	62.4	61.4	-2.26%
숙박	68.6	64.7	60.0	62.7	63.3	63.3	62.3	-1.57%
당일	74.8	66.8	59.0	62.4	60.7	60.7	59.7	-3.68%
관광여행	84.9	81.8	77.1	75.6	76.6	76.2	77.5	-1.50%
숙박	91.2	88.8	83.4	82.4	84.0	83.5	86.8	-0.82%
당일	70.7	67.7	65.0	61.2	61.7	61.4	59.9	-2.72%
기타여행	58.0	51.7	43.9	50.6	49.0	49.2	47.6	-3.23%
숙박	49.7	44.7	39.1	44.4	43.1	43.3	40.5	-3.35%
당일	78.6	66.1	53.5	63.4	59.9	60.1	59.6	-4.50%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2. 지역별

1) 국내여행

□ 여행 총량 측면

- 2017년 기준으로 여행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54.5백만회의 여행객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대비 18.2% 증가로 증가 폭 역시 가장 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 기준 20.4백만회의 여행객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9.3%의 증가를 보여 16개 시도 중에서 방문객 수와 증가율 측면에서 7번째로 평균 수준임

[표 3-7] 국내여행 지역별 참가 횟수

(단위: 천회)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16,098	20,264	23,638	26,730	27,656	27,235	35,515	14.10%
부산	11,994	17,402	15,031	11,453	12,300	12,135	14,549	3.27%
대구	5,134	7,452	6,533	5,893	6,162	5,465	6,054	2.78%
인천	3,906	5,056	5,761	6,623	6,869	8,737	9,793	16.56%
광주	3,787	4,271	4,357	4,561	4,609	3,797	4,983	4.68%
대전	4,018	6,169	5,822	6,495	6,133	7,402	7,735	11.54%
울산	2,032	2,913	3,425	2,672	2,801	3,712	3,374	8.82%
경기	20,053	28,358	33,236	36,196	44,327	44,893	54,554	18.15%
강원	13,941	15,866	17,833	20,338	18,502	18,378	20,895	6.98%
충북	6,774	9,081	10,916	9,506	9,875	11,697	14,664	13.74%
충남	13,413	18,522	22,822	24,727	28,126	25,013	28,406	13.32%
전북	12,009	14,048	15,520	15,654	14,900	16,407	20,437	9.27%
전남	13,336	21,259	20,134	16,205	17,128	18,841	21,216	8.04%
경북	15,399	20,797	23,343	19,082	18,384	16,262	18,462	3.07%
경남	15,664	23,810	23,711	21,352	18,706	18,914	21,294	5.25%
제주	4,344	4,759	4,848	4,229	6,023	6,077	6,995	8.26%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 이동 총량 측면에서 여행객의 총 체류 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경기도로 2017년 기준 79.1백만일을 여행객들이 머물었으며, 2011년 대비 16.6% 증가하여 증가율 역시 가장 높음
- 전라북도는 2017년 31.6백만일을 여행객들이 머물었으며, 2011년 대비 6.5% 증가율을 보여 16개 시도 중에서 각각 8위와 12위를 차지하여 방문객들의 체류일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표 3-8] 국내여행 지역별 이동 총량

(단위: 천일)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28,882	32,330	35,730	39,970	41,725	38,001	49,671	9.46%
부산	19,437	25,294	22,440	18,687	20,196	20,974	23,607	3.29%
대구	7,691	11,618	9,488	9,071	8,946	8,681	9,242	3.11%
인천	6,751	8,941	8,855	10,230	11,000	13,249	14,996	14.23%
광주	5,069	6,336	6,362	8,391	8,673	6,298	8,886	9.81%
대전	5,585	8,520	8,381	9,756	9,303	10,273	10,485	11.07%
울산	2,985	4,264	4,892	3,884	4,348	5,233	4,710	7.90%
경기	31,430	44,463	48,871	53,789	67,125	69,748	79,090	16.63%
강원	29,739	33,808	38,133	44,989	39,063	38,424	46,298	7.66%
충북	13,480	15,682	18,389	16,188	16,809	19,863	23,607	9.79%
충남	23,188	30,116	36,599	39,637	42,987	39,700	45,100	11.73%
전북	21,646	23,113	24,758	29,389	24,387	27,833	31,604	6.51%
전남	22,421	33,534	32,870	29,117	30,113	33,212	38,612	9.48%
경북	27,438	34,470	39,061	35,251	31,339	29,075	33,369	3.32%
경남	25,794	37,635	38,463	36,170	31,703	33,322	37,667	6.51%
제주	15,413	15,159	15,931	13,789	19,102	18,482	22,730	6.69%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 여행 비용 측면

- 지역별 여행 비용을 보면, 가장 여행 비용이 많이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4.2조원이 지역 내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대비 12.3% 증가하여 증가율 역시 가장 높음

- 전라북도는 2017년에 총 1.8조원을 지역 방문 여행객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 대비 5.2% 증가하여 16개 시도 중에서 각각 9위와 10위를 기록하여 중위권 수준을 보임

[표 3-9] 국내여행 지역별 여행 비용

(단위: 십억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1,760	1,974	2,020	2,539	2,413	2,320	3,042	9.55%
부산	1,428	1,566	1,193	1,177	1,398	1,419	1,664	2.57%
대구	488	690	464	467	509	522	528	1.30%
인천	387	551	506	591	751	815	751	11.68%
광주	284	353	289	404	424	327	411	6.35%
대전	359	424	436	530	556	594	702	11.83%
울산	220	283	259	236	242	266	285	4.38%
경기	2,090	2,505	2,655	3,015	3,334	3,469	4,180	12.25%
강원	2,405	2,722	2,709	3,193	2,812	2,907	3,395	5.91%
충북	665	900	852	903	889	941	1,050	7.90%
충남	1,555	1,701	1,933	2,379	2,452	2,174	2,388	7.40%
전북	1,316	1,361	1,321	1,454	1,523	1,681	1,779	5.16%
전남	1,450	2,168	1,806	1,752	1,921	2,041	2,088	6.26%
경북	1,741	2,225	2,315	2,095	1,820	1,705	2,068	2.90%
경남	1,750	2,085	1,971	2,132	1,949	2,054	2,163	3.59%
제주	2,306	2,384	2,505	2,073	2,401	2,515	2,964	4.27%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 1회 방문당 여행 비용을 조사하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지역은 제주도로 2017년에 1회 방문시 평균 42.4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도가 16.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와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숙박 여행의 비중이 높으며, 계절형 휴가 대상 지역으로 1회 여행시 장기간의 체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임
-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출비용 원단위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비용절감형 여행이 전반적인 여행 트렌드를 알 수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1회 방문시 평균 8.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16개 시도 중에서 9위에 위치하고 있음

[표 3-10] 국내여행 지역별 여행 횟수당 여행 비용

(단위: 천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109.3	97.4	85.4	95.0	87.2	85.2	85.7	-4.0%
부산	119.1	90.0	79.4	102.7	113.7	116.9	114.3	-0.7%
대구	95.1	92.6	71.0	79.2	82.7	95.5	87.2	-1.4%
인천	99.0	108.9	87.9	89.2	109.3	93.2	76.7	-4.2%
광주	75.1	82.6	66.4	88.6	92.1	86.2	82.5	1.6%
대전	89.4	68.8	75.0	81.5	90.7	80.2	90.8	0.3%
울산	108.5	97.1	75.7	88.4	86.5	71.7	84.5	-4.1%
경기	104.2	88.3	79.9	83.3	75.2	77.3	76.6	-5.0%
강원	172.5	171.5	151.9	157.0	152.0	158.2	162.5	-1.0%
충북	98.2	99.1	78.1	95.0	90.0	80.4	71.6	-5.1%
충남	116.0	91.8	84.7	96.2	87.2	86.9	84.1	-5.2%
전북	109.6	96.9	85.1	92.9	102.2	102.4	87.1	-3.8%
전남	108.7	102.0	89.7	108.1	112.2	108.3	98.4	-1.6%
경북	113.1	107.0	99.2	109.8	99.0	104.8	112.0	-0.2%
경남	111.7	87.6	83.1	99.9	104.2	108.6	101.6	-1.6%
제주	530.7	501.0	516.8	490.1	398.7	413.8	423.6	-3.7%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 여행 일수당 여행 비용은 해당 지역에서 관광 혹은 여행 콘텐츠로서 향유할 수 있는 아이템이 많을수록 비용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제주도와 강원도가 여행 1일당 각각 13.0만원과 7.3만원이 지출됨
- 여행 횟수당 여행 비용과 마찬가지로 여행 일수당 여행 비용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여행 1일당 평균 지출 비용은 5.6만원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10번째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음

[표 3-11] 국내여행 지역별 여행 일수당 여행 비용

(단위: 천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60.9	61.0	56.5	63.5	57.8	61.0	61.3	0.1%
부산	73.5	61.9	53.2	63.0	69.2	67.6	70.5	-0.7%
대구	63.5	59.4	48.9	51.4	56.9	60.1	57.1	-1.8%
인천	57.3	61.6	57.2	57.8	68.3	61.5	50.1	-2.2%
광주	56.1	55.7	45.4	48.2	48.9	52.0	46.3	-3.2%
대전	64.3	49.8	52.1	54.3	59.8	57.8	67.0	0.7%
울산	73.8	66.3	53.0	60.8	55.7	50.9	60.5	-3.3%
경기	66.5	56.3	54.3	56.1	49.7	49.7	52.8	-3.8%
강원	80.9	80.5	71.0	71.0	72.0	75.7	73.3	-1.6%
충북	49.3	57.4	46.3	55.8	52.9	47.4	44.5	-1.7%
충남	67.1	56.5	52.8	60.0	57.0	54.8	52.9	-3.9%
전북	60.8	58.9	53.4	49.5	62.5	60.4	56.3	-1.3%
전남	64.7	64.7	54.9	60.2	63.8	61.5	54.1	-2.9%
경북	63.5	64.6	59.3	59.4	58.1	58.6	62.0	-0.4%
경남	67.9	55.4	51.3	58.9	61.5	61.6	57.4	-2.7%
제주	149.6	157.3	157.2	150.3	125.7	136.1	130.4	-2.3%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2) 숙박여행

□ 여행 총량 측면

- 2017년 기준으로 숙박여행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16.4백만회의 여행객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대비 12.8% 증가로 증가폭 측면에서 두 번째로 높음
-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 기준 7.5백만회의 여행객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이후 연평균 5.6%의 증가를 보여 16개 시도 중에서 방문객 수와 증가율 측면에서 각각 8위와 10위에 위치함

[표 3-12] 숙박여행 지역별 참가 횟수

(단위: 천회)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6,076	6,840	7,864	7,253	7,307	6,579	8,098	4.90%
부산	4,628	5,847	5,436	4,491	5,413	5,613	6,017	4.47%
대구	1,332	2,640	2,025	1,842	1,837	2,022	1,582	2.90%
인천	1,856	2,320	2,465	2,488	2,712	3,226	3,452	10.89%
광주	966	1,542	1,314	2,156	2,344	1,627	2,410	16.45%
대전	1,147	1,842	1,619	2,081	1,683	1,605	1,561	5.28%
울산	795	1,029	1,072	942	974	1,113	976	3.48%
경기	7,990	10,905	11,305	12,218	14,671	15,600	16,425	12.76%
강원	10,430	11,939	13,296	14,420	13,605	13,453	15,345	6.65%
충북	3,737	4,948	5,743	4,771	4,903	5,731	5,571	6.88%
충남	6,919	8,240	10,207	10,234	10,867	9,651	11,495	8.83%
전북	5,364	6,813	6,677	6,983	6,354	6,608	7,454	5.64%
전남	5,720	8,870	8,778	7,676	8,616	8,805	10,275	10.25%
경북	7,939	9,676	11,509	9,594	8,279	8,099	9,226	2.53%
경남	7,012	9,966	10,549	10,197	8,825	9,043	10,581	7.10%
제주	4,113	4,380	4,550	3,845	5,211	5,006	5,939	6.31%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 이동 총량 측면에서 숙박여행객의 총 체류 기간이 가장 긴 지역은 경기도로 2017년 기준 41.0백만일을 여행객들이 머물렀으며, 2011년 대비 13.2% 증가하여 증가율 측면에서 두 번째로 높음
 - 그 다음으로 숙박여행객의 총 체류기간이 많은 지역은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남도 순으로 이 중 충청남도과 전라남도는 증가율 측면에서 10%에 가까운 수치를 보여 숙박관광객의 체류 연장 정책 효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전라북도는 2017년 18.6백만일을 숙박여행객들이 머물렀으며, 2011년 이후 3.6% 증가율에 그쳐 16개 시도 중에서 각각 9위와 13위를 차지하여 숙박여행객들의 체류일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증가율 측면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와 함께 숙박시설의 확보가 필요함

[표 3-13] 숙박여행 지역별 이동 총량

(단위: 천회)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18,956	18,955	19,986	20,525	21,415	17,394	22,304	2.75%
부산	12,170	13,759	12,884	11,746	13,321	14,494	15,075	3.63%
대구	3,892	6,821	4,977	5,025	4,628	5,239	4,770	3.45%
인천	4,718	6,208	5,569	6,099	6,843	7,760	8,668	10.67%
광주	2,252	3,614	3,330	6,008	6,419	4,128	6,325	18.78%
대전	2,723	4,216	4,208	5,376	4,853	4,480	4,321	8.00%
울산	1,791	2,405	2,571	2,163	2,544	2,650	2,325	4.45%
경기	19,518	27,125	27,041	29,919	37,533	40,556	41,041	13.19%
강원	26,276	29,905	33,652	39,109	34,185	33,528	40,769	7.60%
충북	10,459	11,588	13,276	11,482	11,848	13,919	14,538	5.64%
충남	16,781	20,000	24,093	25,326	25,762	24,411	28,215	9.05%
전북	15,093	16,059	16,096	20,848	15,891	18,081	18,644	3.58%
전남	14,890	21,325	21,763	20,691	21,655	23,226	27,724	10.92%
경북	20,016	23,439	27,303	25,781	21,265	20,928	24,144	3.17%
경남	17,258	23,904	25,470	25,060	21,846	23,492	26,954	7.71%
제주	15,182	14,779	15,633	13,405	18,290	17,410	21,674	6.11%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이동 총량 측면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평균 여행일수에서 찾을 수 있음
- 평균 여행 체류 일수가 가장 긴 지역은 제주도로 1회 방문 시 3.7일을 머물러 있는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2.5일에 불과하며 이는 16개 시도 중에서 13위에 그침
- 또한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여행 체류 일수는 2.8일에서 2.5일로 0.3일 감소하였으며, 이는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큰 지역임
- 따라서 숙박여행객의 체류일수를 타 지역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여행 지출 비용 증가에 직결되는 문제임

[표 3-14] 숙박여행 지역별 평균 여행 일수

(단위: 일)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변화량
서울	3.12	2.77	2.54	2.83	2.93	2.64	2.75	-0.37
부산	2.63	2.35	2.37	2.62	2.46	2.58	2.51	-0.12
대구	2.92	2.58	2.46	2.73	2.52	2.59	3.02	0.09
인천	2.54	2.68	2.26	2.45	2.52	2.41	2.51	-0.03
광주	2.33	2.34	2.53	2.79	2.74	2.54	2.62	0.29
대전	2.37	2.29	2.60	2.58	2.88	2.79	2.77	0.39
울산	2.25	2.34	2.40	2.30	2.61	2.38	2.38	0.13
경기	2.44	2.49	2.39	2.45	2.56	2.60	2.50	0.06
강원	2.52	2.50	2.53	2.71	2.51	2.49	2.66	0.14
충북	2.80	2.34	2.31	2.41	2.42	2.43	2.61	-0.19
충남	2.43	2.43	2.36	2.47	2.37	2.53	2.45	0.03
전북	2.81	2.36	2.41	2.99	2.50	2.74	2.50	-0.31
전남	2.60	2.40	2.48	2.70	2.51	2.64	2.70	0.10
경북	2.52	2.42	2.37	2.69	2.57	2.58	2.62	0.10
경남	2.46	2.40	2.41	2.46	2.48	2.60	2.55	0.09
제주	3.69	3.37	3.44	3.49	3.51	3.48	3.65	-0.04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 여행 비용 측면

- 지역별 숙박여행 비용을 보면, 가장 비용이 많이 지출된 지역은 강원도로 3.0조원이 지역 내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5.7%로 6위에 그침
 - 숙박 비용 측면에서 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제주도이며,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의 숙박여행 비용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반해 전라북도는 2017년에 총 1.1조원을 지역 방문 여행객이 숙박여행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 이후 연평균 3.1% 증가에 그쳐 16개 시도 중에서 각각 10위와 14위를 기록하여 하위권 수준을 보임

[표 3-15] 숙박여행 지역별 여행 비용

(단위: 십억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953	993	1,056	1,235	1,155	1,029	1,244	4.5%
부산	845	805	749	796	1,001	1,059	1,123	4.8%
대구	192	312	196	255	200	278	228	3.0%
인천	240	334	301	359	453	501	430	10.2%
광주	110	182	130	258	293	209	251	14.8%
대전	184	187	221	271	305	255	261	6.0%
울산	114	149	139	125	124	131	137	3.2%
경기	1,136	1,356	1,244	1,489	1,666	1,850	2,126	11.0%
강원	2,125	2,395	2,344	2,766	2,463	2,544	2,963	5.7%
충북	467	600	555	574	530	568	575	3.5%
충남	1,059	1,075	1,203	1,422	1,477	1,233	1,416	5.0%
전북	880	889	833	1,019	1,022	1,131	1,057	3.1%
전남	933	1,393	1,181	1,245	1,346	1,374	1,442	7.5%
경북	1,228	1,468	1,556	1,513	1,261	1,191	1,479	3.1%
경남	1,101	1,303	1,283	1,470	1,337	1,402	1,538	5.7%
제주	2,284	2,352	2,488	2,051	2,349	2,449	2,902	4.1%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 1회 방문당 숙박여행 비용을 조사하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지역은 제주도로 2017년에 1회 방문시 평균 48.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강원도가 19.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와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숙박 여행의 비중이 높으며, 계절형 휴가 대상 지역으로 1회 여행시 장기간의 체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임
-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출비용 원단위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비용절감형 여행이 전반적인 여행 트렌드임을 알 수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1회 방문시 평균 14.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16개 시도 중에서 9위에 위치하고 있음

[표 3-16] 숙박여행 지역별 횡수당 여행 비용

(단위: 천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156.8	145.1	134.3	170.2	158.1	156.3	153.6	-0.3%
부산	182.6	137.7	137.7	177.3	185.0	188.7	186.6	0.4%
대구	143.8	118.1	96.8	138.3	109.1	137.3	144.3	0.1%
인천	129.2	143.8	122.0	144.4	167.0	155.2	124.7	-0.6%
광주	113.4	118.3	99.2	119.8	125.0	128.4	104.0	-1.4%
대전	160.9	101.6	136.3	130.1	181.1	159.1	167.3	0.7%
울산	142.9	144.5	130.1	132.2	127.3	117.5	140.7	-0.3%
경기	142.1	124.3	110.1	121.9	113.5	118.6	129.4	-1.5%
강원	203.7	200.6	176.3	191.8	181.1	189.1	193.1	-0.9%
충북	125.0	121.2	96.6	120.4	108.2	99.2	103.1	-3.2%
충남	153.0	130.5	117.8	139.0	135.9	127.7	123.1	-3.6%
전북	164.0	130.5	124.8	145.9	160.9	171.2	141.8	-2.4%
전남	163.1	157.0	134.6	162.2	156.3	156.0	140.4	-2.5%
경북	154.7	151.7	135.2	157.7	152.3	147.1	160.3	0.6%
경남	157.1	130.8	121.6	144.2	151.5	155.1	145.3	-1.3%
제주	555.3	536.9	546.9	533.5	450.7	489.2	488.7	-2.1%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 여행 일수당 여행 비용은 제주도가 13.4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이 7.5만원으로 두 번째로 하루 평균 여행 비용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부산의 경우 하루 평균 지출 규모가 2번째로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다르게 2011년보다 평균 규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남
- 여행 횡수당 여행 비용과 마찬가지로 여행 일수당 여행 비용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여행 1일당 평균 지출 비용은 5.7만원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8번째로 중위권에 머물러 있음

[표 3-17] 숙박여행 지역별 일수당 여행 비용

(단위: 천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50.3	52.4	52.8	60.2	53.9	59.1	55.8	1.7%
부산	69.4	58.5	58.1	67.8	75.2	73.1	74.5	1.2%
대구	49.2	45.7	39.4	50.7	43.3	53.0	47.9	-0.5%
인천	50.8	53.7	54.0	58.9	66.2	64.5	49.7	-0.4%
광주	48.6	50.5	39.2	43.0	45.7	50.6	39.6	-3.3%
대전	67.7	44.4	52.4	50.4	62.8	57.0	60.5	-1.9%
울산	63.4	61.8	54.2	57.6	48.8	49.3	59.1	-1.2%
경기	58.2	50.0	46.0	49.8	44.4	45.6	51.8	-1.9%
강원	80.9	80.1	69.7	70.7	72.1	75.9	72.7	-1.8%
충북	44.7	51.8	41.8	50.0	44.8	40.8	39.5	-2.0%
충남	63.1	53.8	49.9	56.2	57.3	50.5	50.2	-3.7%
전북	58.3	55.4	51.8	48.9	64.3	62.6	56.7	-0.5%
전남	62.7	65.3	54.3	60.2	62.2	59.2	52.0	-3.1%
경북	61.4	62.6	57.0	58.7	59.3	56.9	61.2	0.0%
경남	63.8	54.5	50.4	58.7	61.2	59.7	57.0	-1.9%
제주	150.5	159.1	159.2	153.0	128.4	140.7	133.9	-1.9%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3) 당일여행

□ 여행 총량 측면

- 2017년 기준으로 당일여행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38.1백만회의 여행객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이후 연평균 21.1% 증가로 증가폭 측면에서 두 번째로 높음

- 그 다음으로 당일여행 방문객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임⁶⁾

6) 서울로의 당일여행 증가가 높은 이유는 KTX 및 고속도로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한 접근성 등으로 지방에서 유입되는 여행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됨.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국민여행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간 여행 유출입 분석을 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수행하지 않은 관계로 원인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함

-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 기준 13.0백만회의 당일 여행객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이후 연평균 11.8%의 증가를 보여 16개 시도 중에서 방문객 수와 증가율 측면에서 각각 3위와 8위에 위치함
- 숙박여행과 달리 당일여행의 규모가 큰 이유는 관광여행보다는 기타여행의 증가 영향이 큼

[표 3-18] 당일여행 지역별 참가 횟수

(단위: 천회)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10,022	13,423	15,774	19,477	20,350	20,656	27,417	18.3%
부산	7,366	11,555	9,595	6,962	6,887	6,522	8,532	2.5%
대구	3,802	4,812	4,508	4,051	4,326	3,442	4,472	2.7%
인천	2,050	2,736	3,296	4,135	4,158	5,511	6,342	20.7%
광주	2,821	2,729	3,042	2,405	2,266	2,170	2,573	-1.5%
대전	2,871	4,327	4,203	4,414	4,450	5,796	6,174	13.6%
울산	1,236	1,883	2,353	1,730	1,827	2,599	2,398	11.7%
경기	12,063	17,453	21,931	23,978	29,656	29,294	38,129	21.1%
강원	3,511	3,927	4,537	5,918	4,897	4,925	5,550	7.9%
충북	3,037	4,133	5,173	4,735	4,972	5,966	9,093	20.1%
충남	6,494	10,282	12,614	14,493	17,258	15,362	16,941	17.3%
전북	6,645	7,235	8,843	8,672	8,546	9,799	12,983	11.8%
전남	7,616	12,389	11,357	8,529	8,512	10,036	10,941	6.2%
경북	7,460	11,121	11,834	9,488	10,105	8,163	9,236	3.6%
경남	8,652	13,844	13,162	11,155	9,881	9,871	10,713	3.6%
제주	231	380	298	385	812	1,072	1,056	28.8%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 여행 비용 측면

- 지역별 여행 비용을 보면, 가장 당일여행 비용이 많이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2.1조원이 지역 내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대비 13.6% 증가하여 증가율 역시 가장 높음

- 전라북도는 2017년에 총 0.7조원을 지역 방문 여행객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 대비 8.8% 증가하여 16개 시도 중에서 각각 4위와 8위를 기록하여 중위권 수준을 보임

[표 3-19] 당일여행 지역별 여행 비용

(단위: 십억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807	981	964	1,304	1,258	1,291	1,799	14.3%
부산	583	961	444	380	397	360	541	-1.3%
대구	297	378	268	212	309	244	299	0.2%
인천	147	217	205	232	298	314	320	13.9%
광주	175	170	159	146	131	118	160	-1.4%
대전	175	237	216	259	251	338	441	16.7%
울산	107	134	120	112	118	136	148	5.6%
경기	954	1,149	1,411	1,526	1,669	1,618	2,054	13.6%
강원	280	327	365	427	348	364	432	7.5%
충북	198	300	297	329	358	373	475	15.7%
충남	497	625	730	953	975	941	972	11.8%
전북	436	472	488	435	501	550	723	8.8%
전남	517	775	625	507	575	667	646	3.8%
경북	513	758	758	582	559	513	589	2.3%
경남	649	781	688	662	611	652	625	-0.6%
제주	21	33	17	22	53	66	61	19.1%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 1회 방문당 여행 비용을 조사하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지역은 강원도로 2017년에 1회 방문시 평균 7.8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이 7.1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출비용 원단위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비용절감형 여행이 전반적인 여행 트렌드를 알 수 있음

○ 전라북도의 경우 1회 방문시 평균 5.6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16개 시도 중에서 13위에 위치하고 있음

- 1회당 비용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총 비용 규모는 높은 이유는 지역별 1회당 당일여행 비용의 분포가 거의 고르기 때문임

[표 3-20] 당일여행 지역별 회수당 여행 비용

(단위: 천원)

항목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서울	80.5	73.1	61.1	67.0	61.8	62.5	65.6	-3.4%
부산	79.2	83.2	46.3	54.6	57.7	55.2	63.4	-3.6%
대구	78.0	78.6	59.4	52.3	71.4	70.9	66.9	-2.5%
인천	71.7	79.4	62.3	56.1	71.8	57.0	50.5	-5.7%
광주	61.9	62.4	52.2	60.6	58.0	54.5	62.4	0.1%
대전	60.8	54.8	51.3	58.6	56.5	58.4	71.4	2.7%
울산	86.3	71.2	50.9	64.5	64.7	52.1	61.6	-5.5%
경기	79.1	65.8	64.3	63.6	56.3	55.2	53.9	-6.2%
강원	79.8	83.2	80.4	72.1	71.1	73.8	77.9	-0.4%
충북	65.1	72.7	57.5	69.5	72.1	62.5	52.3	-3.6%
충남	76.5	60.8	57.9	65.8	56.5	61.3	57.4	-4.7%
전북	65.6	65.2	55.2	50.2	58.6	56.1	55.7	-2.7%
전남	67.9	62.6	55.0	59.5	67.6	66.5	59.0	-2.3%
경북	68.8	68.1	64.1	61.4	55.3	62.9	63.7	-1.3%
경남	75.0	56.4	52.3	59.3	61.9	66.0	58.3	-4.1%
제주	92.7	86.4	57.0	56.2	64.7	61.2	57.8	-7.6%

출처 : 국민여행 실태조사 보고서(2011년~2017년)

주 : 세종은 2014년부터 발표가 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충남에 포함시킴

제2절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1. 지역 산업연관표 작성

1) 작성 흐름도

- 지역산업연관표 작성은 총 네 단계에 거쳐 이루어짐
- 첫 번째 단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통계청 기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임⁷⁾
 -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30부문)과 통계청 지역계정의 산업부문(22부문)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를 기준산업연관표(bench mark IO)로 하되, 한국은행 기준의 산업 분류를 통계청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GRAS 방식으로 계수 추정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짐
 - 한국은행 기준 30개 부문 → 통계청 기준 22개 부문 → GRAS 방식 추정 과정 19개 부문
- 두 번째 단계는 통계청 자료를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 항목으로 분류하는 단계임
 - 한국은행의 지역산업연관표는 수입 부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나, 통계청의 생산계정과 지출계정 자체가 수입을 포함한 값으로 공표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함
 - 수입과 수출 규모는 통계청 자료 상에서는 산업별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입 부문은 산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만 집계하여 해외 부문으로 둬
 - 통계청의 지역계정 자료에는 해외 수출입 수지만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의 무역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수출과 수입 규모를 각각

7)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간 산업연관표에서의 산업분류는 대분류 기준으로 30개인 반면, 통계청의 지역계정 발표 자료에서 제시하는 산업분류는 22개임. 하지만, 통계청 기준의 산업연관표를 작성하기 위해 GRAS 방식을 사용하여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산업 분류는 19개로 축소됨

계산하여 수출입 수지를 맞춤⁸⁾

[표 3-21] 산업연관표 작성을 위한 산업 분류

기존 산업분류 (30개 대분류)	산업분류 재분류 (19개 분류)	기존 산업분류 (30개 대분류)	산업분류 재분류 (19개 분류)
농림수산물	농림수산물(1)	전력, 가스 및 증기	기반시설 서비스(9)
광산물		수도, 폐기물 및 재활용서비스	
음식료품	음식료품 및 담배(2)	건설	건설(10)
섬유 및 가죽제품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3)	도소매서비스	도소매서비스(11)
목재 및 종이, 인쇄	목재, 종이, 인쇄 및 목제품(4)	운송서비스	운송서비스(12)
석탄 및 석유제품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5)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13)
화학제품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정보통신 및 방송서비스(14)
비금속광물제품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6)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금융 및 보험서비스(15)
1차 금속제품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16)
금속제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사업서비스(16)
기계 및 장비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7)	사업지원서비스	의료 행정서비스(17)
운송장비		공공행정 및 국방	
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기 및 전자기기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8)	교육서비스	교육 문화서비스(18)
정밀기기		문화 및 기타 서비스	

○ 세 번째 단계는 연도별 통계청의 지역계정 자료를 조정하는 단계로 순생산물세를 산업별 배분하는 과정임

- 통계청의 지역계정은 생산소득을 지역별 산업별 기초가격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순생산물세가 지역의 총합으로 공표되지만, 총지출은 순생산물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맞춤 필요가 있음

8) 통계청의 지역계정 자료 중 지출계정에서 지역별 재화 및 서비스의 순이출 규모 자료가 있는데 이를 모두 더하면 해당 값이 해외 수출입 수지를 의미함

- 또한 한국은행에서 작성한 지역내총생산 및 총산출액과 통계청의 값이 서로 다르지만 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 분석에 큰 지장이 없음.⁹⁾
- 네 번째 단계는 GRAS(Generalized RAS) 방법을 이용하여 중간수요 및 최종수요를 추정하는 단계임
 - GRAS는 RAS의 일반화된 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음
 - RAS는 “양비례조정법”이라고 불리며, 특정 정방행렬의 행의 합과 열의 합이 주어졌을 때, 정방행렬의 원소값을 추정하는 방법임
 - 하지만, RAS는 조정대상 값들이 양수이며, 행렬이 정방행렬이어야 하는 제약이 있음
 - 그러나 GRAS는 이 두 제약조건이 존재해도 행의 합과 열의 합이 주어졌을 경우, 행렬의 원소를 추정하는 방법임.
 - 여기서는 Umed Temurshoev et al(2013)이 정리한 방법을 사용함

2) 작업 단계별 개요

□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조정

- 한국은행에서 공표되는 지역산업연관표는 2013년 자료가 최신 자료로 해당 자료는 [그림 3-1]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앞서 언급하였듯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연관표의 산업부문을 대분류(30부문)에서 통계청의 분류(19부문)으로 조정함
- 순생산물세와 잔폐물 발생액은 중간거래 행렬에 포함되지 않고 산업별 중간투입계에서 일괄차감방식을 적용.
 - 또한 두 가지는 국산 및 수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후 활용될 통계청은 국산과 수입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합하여 일괄차감방식을 적용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정된 한국은행 2013년 기준 지역산업연관표는 16개 지역 19부문으로 조정됨

9) 안흥기 외 2인, 2015.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 연구」, 국토연구원, 세종, p70.

배분 투입		중 간 수요		최 종 수요		총 산 출	
		지역 R	지역 S	지역 R	지역 S		
		1...j...n	1...j...n				
중 간 투 입	지역 R	1 : i : n	INTD _i ^{rr}	INTD _i ^{rs}	F _i ^{rr}	F _i ^{rs}	X _i ^r
	지역 S	1 : i : n	INTD _i ^{sr}	INTD _i ^{ss}	F _i ^{sr}	F _i ^{ss}	X _i ^s
수 입		1 : n	M _j ^r	M _j ^s	F.M _j ^r	F.M _j ^s	
부 가 가 치	노동		w _j ^r L _j ^r	w _j ^r L _j ^r			
	자본		r _j ^r K _j ^r	r _j ^r K _j ^r			
총투입			X _j ^r	X _j ^s			

[그림 3-1]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의 구조

□ 통계청 자료 조정

- 통계청 지역계정 자료는 지출 부문에 국산 및 수입까지 포함됨.
- 따라서 한국은행 지역산업연관표의 수출입부문이 최종수요 부문에서 외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통계청 지역계정 자료 중 최종재 지출 부문에서 수출입 부문을 외생화해야 함
- 최종적으로 GRAS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별 중간투입계, 총지출 및 총산출액이 제시되어야 함.
- GRAS를 이용해서 추정하고자 하는 행렬은 304×320 행렬이 됨. 구체적으로 304행은 16개 지역 19부문을 구성되며, 320열은 중간수요의 304개와 최종수요의 16개 지역이 포함됨.

- 즉, GRAS는 기존 RAS처럼 중간거래 행렬(304×304)만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수요 부문까지 포함하여 추정하는 것임. 따라서 투입방향으로 최종지출이 지역별(16 지역)로 포함됨.
- 통계청의 지역계정에서 생산소득은 산업별 기초가격으로 제공되며, 순생산물세가 마지막에 일괄합산되어 생산액이 제공됨. 따라서 총투입과 총산출을 맞추기 위해서는 순생산물세를 배분해줘야 함.
- 순생산물세의 배분은 지역별 생산액 비율로 함.
 - 왜냐하면, 순생산물세는 산업별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임.

□ GRAS를 이용한 추정

- GRAS는 행렬의 조정법으로 잘 알려진 RAS¹⁰⁾를 일반화한 방법이다. RAS는 흔히 양비례조정법이라 불리며, 정방행렬($n \times n$)인 어떤 행렬의 원소를 추정하는 방법임.
 - 정방행렬의 원소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n 개의 행의 합과 n 개의 열의 합이 존재하여야 하며, 각각의 행과 열의 합을 원소에 비례조정할 수 있는 기준 (bench mark) 자료가 필요함.
- 특히 행렬 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값은 반드시 양수이어야 함.
- GRAS는 RAS와는 달리 정방행렬이 아니어도 추정이 가능하며, 행렬의 원소가 양수와 음수 둘 다를 가져도 행렬의 조정이 가능한 방법임¹¹⁾
- 본 연구에서는 GRAS 방법을 이용하여 중간거래 및 최종수요 부문에 대한 원소 값을 조정 및 업데이트(Update)함. 또한 본 연구에서는 2010년과 2013년을 제외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산업연관표를 작성함.

10) RAS는 bi-proportional matrix balancing이라고 불림.

11) Umed Temurshoev, Ronald E. Miller, Maaikje C. Bouwmeester, 2013. "A NOTE ON THE GRAS METHOD", Economic Systems Research, vol.25(3),p361-367.

- 이때 사용되는 기준 자료로는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자료임.
-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지역산업연관표 자료가 2010년과 2013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이 자료가 실초표이며, 2010년 자료가 연장표이기 때문임.
- 보다 자세한 GRAS 방법은 Umed Temurshoev et al(2013)의 자료를 참조

2. 전라북도 관광위성계정 작성

- 지역관광위성계정은 관광수요계정과 관광공급계정으로 구분하여 볼 때, 먼저 관광수요계정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광공급계정의 내용을 추정하는 과정을 거침

□ 관광수요계정 작성 과정

- 관광수요계정 작성 과정은 국민여행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5단계에 걸쳐 진행함
- 1단계는 방문지역별 여행 유형별(관광/기타, 당일/숙박) 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단계로 여행 유형별로 지출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별로 총 지출 규모를 계산함
 - 국민여행 실태조사 원자료는 단위여행과 방문지별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위여행의 경우 여행 사전 지출 비용과 총 지출 비용이 제시됨
 - 이에 반해 방문지별 자료에는 여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제시되어 있어 단위여행 자료과 방문지 여행 자료를 합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단위여행 내에서 2군데 이상의 여행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지출비용이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균등 배분하기로 함¹²⁾

12) 사전지출비용은 여행 방문지보다는 여행자의 거주지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에서 지출한다고 가정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전지출비용 역시 여행 방문지에서 지출한다고 가정함

- 2단계는 여행 유형별로 세부 지출항목별 지출 규모를 추정하는 단계로 일부 여행 유형에서는 세부 지출 항목별 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재분류하는 단계임
 - 기타여행의 경우 지출 항목이 사전지출비용과 여행지 지출비용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 항목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함
- 3단계는 여행비용 세부 항목별로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체계와 매칭하는 단계로 매칭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22] 국내여행비용 세부 항목 처리를 위한 전체비

항목	산업연관표 매칭
여행사 상품 구입비	사업서비스
숙박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교통비	운송서비스
식/음료비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문화/오락시설/이용료/관람료	교육 문화서비스
스포츠/레포츠용품 대여/구입비	사업서비스
기념품 및 쇼핑비	도소매서비스
여행관련용품 구입비	도소매서비스
기타비용	교육 문화서비스

- 4단계는 3단계에서 매칭되는 산업별 관광 최종재 비율에 따라 CTR (Consumption Tourism Ratio)를 계산하여 산업연관표를 재조정하는 단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략함¹³⁾

13) CTR를 구하는 이유는 특정 산업 내에서 관광산업과 비관광산업을 분리하여 관광산업의 산업간 연관관계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함인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간 연관관계보다는 관광산업의 효과 도출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본 과정은 CRT는 계산하였지만 산업연관표 재조정 과정은 생략하여도 무방함

□ 관광공급계정 작성 과정

- 관광수요계정과 결합된 관광공급계정 작성 과정은 3단계에 걸쳐 진행함
- 1단계는 관광수요계정의 결과를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직접 관광산업 규모를 추정하는 단계임
 - 해당 지역에서 여행객의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산업이 해당 최종재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및 고용을 추정함
- 2단계는 관광수요계정을 결과를 산업연관표의 투입산출모형을 활용하여 직간접 관광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단계임
 - 직간접 관광산업은 직접 관광산업의 생산활동과 연계되는 산업들로 이 부분은 산업연관표를 가공한 투입산출모형에 적용
 - 단 지역별 직간접 관광산업 규모는 해당 지역내에서만 지출된 여행 비용의 효과만 받는 것으로 가정함
- 3단계는 국내 여행 및 관광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발생하는 지역별 관광 직간접 관광산업의 규모를 추정하는 단계임
 - 앞선 2단계에서는 지역내 여행 지출로만 발생하는 관광 직간접산업만을 고려하였으나, 타 지역을 포함한 국내 관광 활동으로 인한 관광 직간접산업을 추정함
 - 즉, 2단계에서는 관광 최종재 발생이 해당 지역에서만 발생한다고 본 반면, 3단계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관광 최종재 소비가 이루어질 경우의 효과를 추정함

4

장

전라북도 관광산업 효과 분석

Jeonbuk Institute

제1절 관광 GRDP

제2절 전라북도 관광 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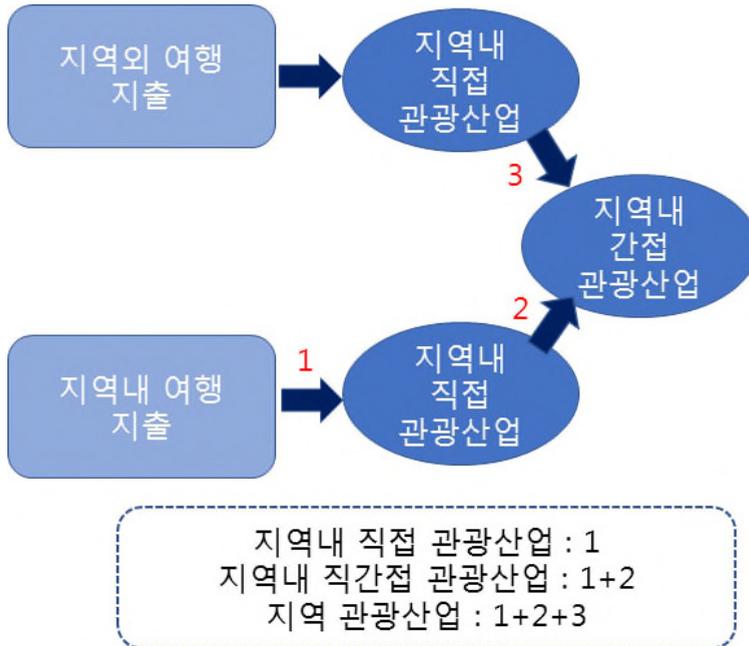
제3절 전라북도 관광산업 유발계수

제4장 전라북도 관광산업 효과 분석

제1절 관광 GRDP

1. 관광산업의 범위

- 본 연구에서 관광산업의 범위를 크게 3가지로 보고자 함
- 첫 번째 관광산업은 지역 내에서 여행 지출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산업으로 해당 산업의 CRT 값 도출을 통해 산업 규모 및 취업자 수를 구함
- 두 번째 관광산업은 지역 내에서 여행 지출로 발생하는 최종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산업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이는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도출되는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로 파악함



[그림 4-1] 관광산업의 범위

- 세 번째 관광산업은 지역 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여행 지출로 발생하는 최종재 생산과 관련된 지역내 간접관광산업을 포함한 산업으로 투입산출모형을 통해 16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관광 지출 규모로 발생하는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로 파악함

2.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1.7조원이 직접 관광산업 GRDP인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의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의 규모가 큰 지역은 강원도와 제주도, 서울 순인 것으로 나타남

[표 4-1]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부가가치 규모

(단위: 십억원)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연평균 증가율
서울	797	859	879	1,142	1,088	898	1,256	4	7.9%
부산	541	676	430	432	537	548	654	10	3.2%
대구	217	276	212	214	134	211	220	14	0.3%
인천	157	218	195	216	325	330	306	12	11.8%
광주	125	164	78	181	202	151	171	15	5.4%
대전	161	173	182	247	246	275	298	13	10.9%
울산	78	101	106	85	92	100	119	16	7.2%
경기	861	1,000	873	1,206	1,465	1,399	1,720	1	12.2%
강원	987	1,111	1,094	1,289	1,188	1,550	1,454	2	6.7%
충북	258	379	330	407	406	392	439	11	9.3%
충남	548	659	742	922	1,002	868	993	5	10.4%
전북	539	518	531	555	656	705	736	9	5.3%
전남	566	888	740	675	783	849	857	7	7.2%
경북	698	866	899	780	713	662	837	8	3.1%
경남	712	820	787	816	776	818	891	6	3.8%
제주	1,092	1,120	1,178	920	1,118	1,153	1,283	3	2.7%

- 증가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은 경기도와 함께 인천, 대전, 충남인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의 규모는 0.7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16개 시도 중에서 9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5.3%로 11번째로 높아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뒤쳐짐
- 규모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의 규모는 작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 규모 대비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의 규모는 매우 큼
- 전라북도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이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9%로 16개 시도 중에서 3번째로 높음
- 즉, 전라북도에서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이 타 지역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4-2]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부가가치 지역 내 비중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서울	0.24%	0.26%	0.26%	0.33%	0.29%	0.23%	0.31%	15
부산	0.79%	0.95%	0.59%	0.56%	0.65%	0.64%	0.75%	8
대구	0.51%	0.61%	0.45%	0.44%	0.26%	0.40%	0.40%	12
인천	0.24%	0.33%	0.28%	0.29%	0.41%	0.39%	0.35%	14
광주	0.44%	0.55%	0.25%	0.55%	0.58%	0.41%	0.45%	11
대전	0.51%	0.53%	0.54%	0.71%	0.66%	0.70%	0.74%	9
울산	0.11%	0.14%	0.15%	0.12%	0.13%	0.13%	0.16%	16
경기	0.29%	0.32%	0.26%	0.34%	0.38%	0.34%	0.38%	13
강원	2.98%	3.22%	3.02%	3.32%	2.91%	3.60%	3.20%	2
충북	0.60%	0.83%	0.69%	0.81%	0.74%	0.66%	0.67%	10
충남	0.59%	0.70%	0.74%	0.88%	0.91%	0.74%	0.79%	6
전북	1.35%	1.26%	1.22%	1.23%	1.39%	1.47%	1.49%	3
전남	0.89%	1.38%	1.11%	1.02%	1.14%	1.19%	1.16%	4
경북	0.77%	0.93%	0.92%	0.75%	0.69%	0.62%	0.76%	7
경남	0.76%	0.83%	0.79%	0.81%	0.73%	0.75%	0.81%	5
제주	8.95%	8.49%	8.44%	6.07%	6.60%	6.16%	6.42%	1

-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의 취업자 규모를 봤을 때,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49.7천명이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관광산업 취업자 수가 많은 지역은 강원도, 서울, 제주 순임
- 전라북도의 경우, 21.1천명이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16개 시도 중 9번째로 높은 수치이지만 2011년 이후 취업자 수는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취업자 규모

(단위: 명)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연평균 증가율
서울	28,210	31,148	30,760	39,380	32,045	25,600	36,226	3	4.3%
부산	22,487	28,045	18,406	18,023	18,729	17,749	19,738	10	-2.2%
대구	7,971	11,002	6,943	7,384	4,147	6,621	6,286	14	-3.9%
인천	6,282	8,981	7,723	9,347	9,993	10,277	8,917	12	6.0%
광주	4,506	5,691	2,917	6,274	5,687	4,180	4,895	15	1.4%
대전	5,920	6,882	6,757	8,400	7,462	7,618	8,357	13	5.9%
울산	3,548	4,649	4,198	3,832	3,249	3,390	3,391	16	-0.8%
경기	34,098	41,165	33,754	47,020	44,522	43,970	49,696	1	6.5%
강원	38,721	44,077	42,046	49,469	37,847	45,834	40,158	2	0.6%
충북	10,677	14,592	13,218	14,074	11,575	11,919	12,479	11	2.6%
충남	23,542	27,966	30,394	37,146	33,292	27,533	28,374	5	3.2%
전북	21,382	22,132	20,709	22,722	20,534	21,299	21,143	9	-0.2%
전남	22,977	35,067	28,052	27,175	25,862	25,952	24,786	7	1.3%
경북	27,530	35,998	35,916	32,490	24,165	21,462	24,530	8	-1.9%
경남	27,532	33,644	30,795	33,006	26,378	25,810	25,666	6	-1.2%
제주	35,110	36,469	37,765	31,363	31,792	31,233	34,996	4	-0.1%

- 지역 전체 취업자 대비 관광산업 취업자 비중을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전체 취업자의 9.4%가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전라남도임
- 전라북도 역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취업자 비중이 2.3%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함

[표 4-4]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취업자 지역 내 비중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서울	0.55%	0.61%	0.60%	0.76%	0.62%	0.50%	0.70%	12
부산	1.39%	1.69%	1.10%	1.06%	1.11%	1.05%	1.17%	9
대구	0.68%	0.91%	0.58%	0.60%	0.33%	0.53%	0.51%	16
인천	0.46%	0.63%	0.53%	0.64%	0.67%	0.68%	0.58%	14
광주	0.66%	0.82%	0.41%	0.86%	0.78%	0.57%	0.66%	13
대전	0.84%	0.95%	0.92%	1.10%	0.97%	0.98%	1.09%	10
울산	0.66%	0.85%	0.76%	0.69%	0.57%	0.59%	0.58%	15
경기	0.60%	0.70%	0.56%	0.75%	0.70%	0.68%	0.74%	11
강원	5.60%	6.23%	5.96%	6.86%	5.11%	6.12%	5.08%	2
충북	1.41%	1.92%	1.69%	1.71%	1.38%	1.41%	1.45%	8
충남	2.21%	2.55%	2.66%	3.19%	2.78%	2.25%	2.24%	5
전북	2.48%	2.54%	2.31%	2.52%	2.23%	2.27%	2.30%	4
전남	2.49%	3.72%	2.98%	2.88%	2.69%	2.69%	2.59%	3
경북	2.00%	2.58%	2.56%	2.25%	1.69%	1.49%	1.70%	6
경남	1.71%	2.08%	1.88%	1.99%	1.56%	1.51%	1.49%	7
제주	11.94%	12.04%	12.22%	9.74%	9.38%	8.80%	9.36%	1

3.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3.5조원이 직간접 관광산업 GRDP인 것으로 추정됨
 - 경기도의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14.4%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의 규모가 큰 지역은 서울, 강원도, 제주도 순임
 - 서울의 경우, 연관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간접 관광산업의 규모가 큰 반면, 강원도와 제주도는 지역의 간접 관광산업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증가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은 경기도와 함께 인천, 대전, 충남인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의 규모는 1.3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16개 시도 중에서 9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5.3%로 11번째로 높아 상대적으로 성장 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뒤쳐짐

[표 4-5]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부가가치 규모

(단위: 십억원)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연평균 증가율
서울	1,616	1,844	1,883	2,463	2,420	1,976	2,766	2	9.4%
부산	901	1,153	744	762	966	981	1,143	10	4.0%
대구	344	463	363	351	228	369	382	14	1.7%
인천	228	328	297	337	499	518	469	13	12.8%
광주	200	254	123	285	326	244	288	15	6.2%
대전	236	267	281	366	381	424	469	12	12.2%
울산	106	141	145	121	134	145	167	16	7.8%
경기	1,581	1,923	1,717	2,434	2,944	2,938	3,541	1	14.4%
강원	1,550	1,740	1,742	2,093	1,928	2,535	2,366	3	7.3%
충북	422	600	546	635	647	648	716	11	9.2%
충남	888	1,088	1,248	1,571	1,717	1,497	1,624	6	10.6%
전북	926	921	941	1,012	1,159	1,270	1,313	9	6.0%
전남	927	1,408	1,191	1,146	1,338	1,437	1,417	8	7.3%
경북	1,160	1,488	1,556	1,382	1,292	1,195	1,450	7	3.8%
경남	1,275	1,498	1,449	1,542	1,493	1,590	1,660	5	4.5%
제주	1,600	1,663	1,782	1,454	1,818	1,883	2,077	4	4.4%

- 규모 측면에서 전라북도의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의 규모는 직접 관광 산업과 마찬가지로 작다고 볼 수 있으나, 지역 규모 대비 관광산업의 규모는 매우 큼
- 전라북도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이 전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6%로 16개 시도 중에서 3번째로 높음

[표 4-6]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부가가치 지역 내 비중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서울	0.50%	0.55%	0.55%	0.70%	0.65%	0.51%	0.68%	14
부산	1.32%	1.62%	1.02%	0.98%	1.17%	1.15%	1.30%	7
대구	0.81%	1.03%	0.77%	0.72%	0.44%	0.69%	0.70%	13
인천	0.35%	0.49%	0.43%	0.45%	0.62%	0.61%	0.53%	15
광주	0.70%	0.85%	0.39%	0.86%	0.94%	0.66%	0.76%	12
대전	0.74%	0.81%	0.83%	1.05%	1.03%	1.08%	1.16%	9
울산	0.15%	0.20%	0.20%	0.17%	0.18%	0.19%	0.22%	16
경기	0.54%	0.62%	0.51%	0.69%	0.77%	0.72%	0.78%	11
강원	4.69%	5.04%	4.80%	5.40%	4.72%	5.88%	5.20%	2
충북	0.97%	1.32%	1.14%	1.27%	1.17%	1.09%	1.10%	10
충남	0.96%	1.15%	1.24%	1.49%	1.55%	1.28%	1.29%	8
전북	2.31%	2.24%	2.17%	2.24%	2.47%	2.65%	2.66%	3
전남	1.47%	2.18%	1.79%	1.73%	1.94%	2.01%	1.92%	4
경북	1.27%	1.60%	1.60%	1.34%	1.25%	1.11%	1.32%	6
경남	1.35%	1.52%	1.45%	1.53%	1.40%	1.45%	1.52%	5
제주	13.11%	12.61%	12.77%	9.60%	10.73%	10.06%	10.40%	1

-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의 취업자 규모를 봤을 때,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74.0천명이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관광산업 취업자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강원도, 제주도 순임
- 관광산업 취업자 증가율 측면에서 경기, 인천, 대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취업자 증가율이 두드러짐
- 전라북도의 경우, 30.0천명이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16개 시도 중 9번째로 높은 수치이지만 2011년 이후 취업자 수는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7]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취업자 규모

(단위: 명)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연평균 증가율
서울	44,296	50,352	49,838	63,856	53,064	41,695	58,062	2	4.6%
부산	29,452	37,239	24,161	23,746	24,965	23,645	26,323	10	-1.9%
대구	10,187	14,191	9,443	9,638	5,463	8,675	8,374	14	-3.2%
인천	7,460	10,808	9,355	11,188	12,327	12,615	10,933	12	6.6%
광주	5,707	7,172	3,636	7,874	7,321	5,354	6,309	15	1.7%
대전	7,195	8,360	8,355	10,393	9,300	9,542	10,470	13	6.5%
울산	4,030	5,325	4,852	4,400	3,807	3,937	3,972	16	-0.2%
경기	47,098	57,484	48,353	67,968	66,160	65,126	73,987	1	7.8%
강원	50,509	57,260	55,279	65,131	50,101	61,408	54,294	3	1.2%
충북	14,347	19,504	17,873	18,781	15,809	16,209	16,995	11	2.9%
충남	30,926	37,025	40,561	49,630	44,914	37,075	37,523	5	3.3%
전북	29,675	30,667	29,064	31,724	28,919	30,105	29,965	9	0.2%
전남	31,352	46,956	38,050	37,276	35,940	35,882	34,158	7	1.4%
경북	36,833	48,830	48,925	43,980	33,384	29,495	33,435	8	-1.6%
경남	37,954	46,343	42,701	45,655	36,952	36,410	36,118	6	-0.8%
제주	45,784	47,906	49,948	41,441	42,721	42,230	47,103	4	0.5%

- 지역 전체 취업자 대비 관광산업 취업자 비중을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전체 취업자의 9.4%가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전라남도임
- 전라북도 역시 전체 취업자 수 대비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취업자 비중이 2.3%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함

[표 4-8]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취업자 지역 내 비중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서울	0.55%	0.61%	0.60%	0.76%	0.62%	0.50%	0.70%	12
부산	1.39%	1.69%	1.10%	1.06%	1.11%	1.05%	1.17%	9
대구	0.68%	0.91%	0.58%	0.60%	0.33%	0.53%	0.51%	16
인천	0.46%	0.63%	0.53%	0.64%	0.67%	0.68%	0.58%	14
광주	0.66%	0.82%	0.41%	0.86%	0.78%	0.57%	0.66%	13
대전	0.84%	0.95%	0.92%	1.10%	0.97%	0.98%	1.09%	10
울산	0.66%	0.85%	0.76%	0.69%	0.57%	0.59%	0.58%	15
경기	0.60%	0.70%	0.56%	0.75%	0.70%	0.68%	0.74%	11
강원	5.60%	6.23%	5.96%	6.86%	5.11%	6.12%	5.08%	2
충북	1.41%	1.92%	1.69%	1.71%	1.38%	1.41%	1.45%	8
충남	2.21%	2.55%	2.66%	3.19%	2.78%	2.25%	2.24%	5
전북	2.48%	2.54%	2.31%	2.52%	2.23%	2.27%	2.30%	4
전남	2.49%	3.72%	2.98%	2.88%	2.69%	2.69%	2.59%	3
경북	2.00%	2.58%	2.56%	2.25%	1.69%	1.49%	1.70%	6
경남	1.71%	2.08%	1.88%	1.99%	1.56%	1.51%	1.49%	7
제주	11.94%	12.04%	12.22%	9.74%	9.38%	8.80%	9.36%	1

4. 지역 관광산업

- 지역 관광산업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12.2조원이 관광산업 GRDP인 것으로 추정됨
 - 서울의 경우, 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로 인해 간접적인 효과가 크게 발생한 다고 볼 수 있음
- 그 다음으로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의 규모가 큰 지역은 경기, 충청남도, 경상남도 순임
-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의 현황과 달리, 제주도와 강원도가 규모에서 밀리는 부분은 관광 연계산업의 집적화가 타 지역에 비해 떨어져 타 지역의 관광산업 효과를 덜 받는다고 볼 수 있음

- 증가율 측면에서 경기도의 연평균 증가율은 11.88%로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증가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은 경기도와 함께 인천, 대전, 충청북도인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 관광산업의 규모는 2.4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16개 시도 중에서 10위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에 비해 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산업 성장률 측면에서, 2011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6.7%로 10번째로 높아 상대적으로 성장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뒤쳐짐

[표 4-9] 지역 관광산업 부가가치 규모

(단위: 십억원)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연평균 증가율
서울	7,512	9,387	9,023	10,287	11,136	11,169	12,249	1	8.5%
부산	1,785	2,292	1,847	2,016	2,316	2,366	2,540	8	6.1%
대구	939	1,253	1,132	1,176	1,111	1,267	1,334	13	6.0%
인천	1,215	1,611	1,547	1,849	2,171	2,248	2,231	11	10.7%
광주	641	824	662	886	1,003	965	1,028	16	8.2%
대전	703	886	886	1,058	1,137	1,211	1,258	14	10.2%
울산	958	1,227	1,120	1,114	1,157	1,162	1,225	15	4.2%
경기	4,772	6,191	6,030	7,265	8,257	8,480	9,343	2	11.8%
강원	1,935	2,220	2,199	2,643	2,528	3,159	3,049	6	7.9%
충북	1,128	1,527	1,454	1,673	1,797	1,888	1,976	12	9.8%
충남	2,187	2,789	2,863	3,458	3,729	3,630	3,812	3	9.7%
전북	1,649	1,820	1,835	2,045	2,248	2,371	2,430	10	6.7%
전남	1,976	2,702	2,425	2,511	2,766	2,924	2,952	7	6.9%
경북	2,178	2,842	2,791	2,858	2,860	2,811	3,066	5	5.9%
경남	2,375	2,940	2,768	3,023	3,095	3,242	3,308	4	5.7%
제주	1,826	1,962	2,062	1,787	2,184	2,290	2,498	9	5.4%

- GRDP에서 지역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도로 12.5%이며, 강원도가 6.7%, 전라북도가 4.92% 순임

- 즉, 전라북도는 관광산업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지역 경제 규모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관광산업 성장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표 4-10] 지역 관광산업 부가가치 지역 내 비중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서울	2.30%	2.81%	2.65%	2.94%	3.01%	2.88%	3.03%	6
부산	2.61%	3.22%	2.52%	2.60%	2.80%	2.77%	2.89%	10
대구	2.20%	2.79%	2.41%	2.41%	2.14%	2.38%	2.43%	14
인천	1.89%	2.43%	2.23%	2.48%	2.71%	2.65%	2.52%	13
광주	2.23%	2.77%	2.12%	2.68%	2.88%	2.62%	2.72%	12
대전	2.22%	2.70%	2.63%	3.03%	3.06%	3.08%	3.10%	5
울산	1.39%	1.75%	1.57%	1.59%	1.59%	1.56%	1.62%	16
경기	1.63%	1.99%	1.81%	2.07%	2.16%	2.08%	2.07%	15
강원	5.85%	6.43%	6.06%	6.82%	6.19%	7.33%	6.70%	2
충북	2.60%	3.36%	3.05%	3.34%	3.26%	3.16%	3.03%	7
충남	2.37%	2.96%	2.85%	3.29%	3.37%	3.11%	3.02%	9
전북	4.12%	4.42%	4.22%	4.53%	4.78%	4.95%	4.92%	3
전남	3.13%	4.19%	3.65%	3.79%	4.02%	4.08%	4.00%	4
경북	2.39%	3.06%	2.87%	2.76%	2.77%	2.62%	2.79%	11
경남	2.52%	2.99%	2.78%	2.99%	2.90%	2.97%	3.02%	8
제주	14.96%	14.87%	14.77%	11.80%	12.89%	12.23%	12.50%	1

- 관광산업의 취업자 규모를 봤을 때,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로 19.7천명이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관광산업 취업자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 강원도, 제충청남도 순임
- 관광산업 취업자 증가율 측면에서 경기, 인천, 대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취업자 증가율이 두드러짐
- 전라북도의 경우, 50.6천명이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16개 시도 중 9번째로 높은 수치이지만 2011년 이후 취업자 수는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1] 지역 관광산업 취업자 규모

(단위: 명)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연평균 증가율
서울	158,491	196,180	184,483	209,050	192,363	179,189	195,785	1	3.6%
부산	49,052	62,421	47,284	49,074	48,575	46,181	48,821	10	-0.1%
대구	20,764	28,074	22,588	23,391	18,644	21,348	21,602	13	0.7%
인천	25,817	35,039	32,124	37,161	37,487	37,339	36,395	11	5.9%
광주	13,109	16,886	12,518	17,530	16,854	14,924	15,938	15	3.3%
대전	15,223	18,759	18,375	21,643	20,022	19,937	20,811	14	5.3%
울산	12,597	16,740	15,169	15,408	14,325	13,584	13,475	16	1.1%
경기	102,622	130,182	120,421	147,672	143,897	141,023	150,601	2	6.6%
강원	60,840	70,198	67,180	78,989	63,170	74,367	68,219	3	1.9%
충북	28,479	37,732	35,028	37,762	34,398	34,831	35,290	12	3.6%
충남	54,884	68,403	69,113	82,110	75,405	67,369	66,824	4	3.3%
전북	47,783	52,734	50,443	55,403	50,838	50,903	50,569	9	0.9%
전남	53,980	74,320	63,638	65,390	61,733	61,557	60,417	6	1.9%
경북	57,697	76,703	73,507	71,910	60,018	55,416	58,465	7	0.2%
경남	59,229	73,874	67,307	72,565	62,586	61,342	60,876	5	0.5%
제주	52,412	56,428	57,657	50,012	50,656	50,927	56,041	8	1.1%

- 지역 전체 취업자 대비 관광산업 취업자 비중을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울로 전체 취업자의 15.0%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 전라남도 순임
- 전라북도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관광산업 취업자 비중이 5.5%로 16개 시도 중 4위를 차지하여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함

[표 4-12] 지역 관광산업 취업자 지역 내 비중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서울	3.08%	3.81%	3.58%	4.01%	3.72%	3.48%	3.80%	8
부산	3.04%	3.76%	2.83%	2.90%	2.88%	2.74%	2.90%	10
대구	1.77%	2.32%	1.87%	1.91%	1.50%	1.71%	1.74%	16
인천	1.87%	2.45%	2.22%	2.52%	2.52%	2.46%	2.37%	12
광주	1.91%	2.44%	1.77%	2.39%	2.30%	2.04%	2.14%	15
대전	2.15%	2.59%	2.50%	2.84%	2.60%	2.58%	2.72%	11
울산	2.34%	3.04%	2.74%	2.77%	2.50%	2.36%	2.31%	13
경기	1.80%	2.22%	2.00%	2.35%	2.25%	2.17%	2.25%	14
강원	8.79%	9.93%	9.52%	10.96%	8.53%	9.93%	8.64%	2
충북	3.75%	4.96%	4.47%	4.59%	4.10%	4.12%	4.10%	6
충남	5.16%	6.25%	6.06%	7.06%	6.29%	5.50%	5.27%	5
전북	5.54%	6.05%	5.64%	6.15%	5.51%	5.42%	5.49%	4
전남	5.85%	7.88%	6.76%	6.92%	6.42%	6.39%	6.31%	3
경북	4.20%	5.50%	5.24%	4.99%	4.19%	3.84%	4.04%	7
경남	3.67%	4.57%	4.10%	4.37%	3.70%	3.60%	3.53%	9
제주	17.83%	18.62%	18.66%	15.53%	14.94%	14.35%	14.98%	1

제2절 전라북도 관광 GRDP

1. 전라북도 관광 GRDP 위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은 규모 측면에서는 중위권에 위치하지만, 지역 경제 규모 대비하여 점유율을 따지면 관광 부가가치는 전체 GRDP의 4.9%, 관광 취업자 수는 5.5%로 16개 시도 중에서 각각 3위, 4위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표 4-13] 지역 적간접 관광산업 취업자 지역 내 비중

(단위: 십억원, 명)

항목	부가가치		취업자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지역내 직접 관광산업	736(9)	1.49%(3)	21,143(9)	2.30%(4)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1,313(9)	2.66%(3)	29,965(9)	3.25%(4)
지역 관광산업	2,430(10)	4.92\$(3)	50,569(9)	5.49%(4)

주 : 괄호는 16개 시도 중 순위를 의미

- 또한 관광산업 특화지수¹⁴⁾를 보면, 전라북도의 관광산업 특화지수는 1.67로 16개 시도 중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로 지역에서 관광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2011년 이후 변화 양상을 보면 2011년 1.70을 보이다가 2012년 1.50으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관광산업의 비중이 평균 대비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도와 강원도는 관광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군 중에서 관광산업 특화지수가 가장 높음
-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전라북도에서 관광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

14) 관광산업 특화지수 = (지역 관광 GRDP/전국 관광 GRDP)/(지역 GRDP/전국 GRDP)로 전국 평균 대비 관광산업의 특화 정도를 나타내며, 1 이상일 경우 지역 경제 규모 대비하여 관광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음

한 해석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여행 실태조사에서와 같이 전라북도가 숙박여행 기반이 취약하다고 본다면, 후자의 해석이 더 맞을 수 있음

[표 4-14] 지역별 관광산업 특화지수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서울	0.95	0.96	0.98	1.01	1.01	0.98	1.03	6
부산	1.07	1.10	0.93	0.89	0.94	0.94	0.98	10
대구	0.91	0.95	0.89	0.83	0.72	0.81	0.82	14
인천	0.78	0.83	0.83	0.85	0.91	0.90	0.85	13
광주	0.92	0.94	0.78	0.92	0.97	0.89	0.92	12
대전	0.92	0.92	0.97	1.04	1.03	1.05	1.05	5
울산	0.58	0.60	0.58	0.55	0.53	0.53	0.55	16
경기	0.67	0.68	0.67	0.71	0.73	0.71	0.70	15
강원	2.41	2.19	2.24	2.34	2.08	2.50	2.27	2
충북	1.07	1.14	1.13	1.15	1.09	1.08	1.03	7
충남	0.98	1.01	1.06	1.13	1.13	1.06	1.02	9
전북	1.70	1.50	1.56	1.55	1.60	1.69	1.67	3
전남	1.29	1.43	1.35	1.30	1.35	1.39	1.36	4
경북	0.99	1.04	1.06	0.95	0.93	0.89	0.94	11
경남	1.04	1.02	1.03	1.03	0.97	1.01	1.02	8
제주	6.17	5.06	5.47	4.05	4.32	4.17	4.24	1

2.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특화 정도

- 전라북도 산업별로 관광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수산물산품의 관광 부가가치가 전체 관광 부가가치의 15.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산업, 운송서비스, 교육문화서비스임
- 농림수산물산품의 경우 직접 관광산업이 아님에도 관광 부가가치 비율이 높은 것은 도내 음식점 및 도소매 과정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임
-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에서 관광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의 비중이 27.6%로 관광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및 담배 역시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관광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관광으로 인한 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4-15]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

(단위: 백만원)

산업	부가가치(A)		관광 부가가치(B)		B/A
	규모	비중	규모	비중	
농림수산물	4,168,703	8.45%	382,728	15.75%	9.18%
음식료품 및 담배	1,967,218	3.99%	192,861	7.94%	9.80%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265,071	0.54%	6,210	0.26%	2.34%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651,791	1.32%	33,690	1.39%	5.17%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2,690,351	5.45%	86,560	3.56%	3.22%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2,511,178	5.09%	43,931	1.81%	1.75%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299,367	6.69%	33,638	1.38%	1.0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835,870	1.69%	13,852	0.57%	1.66%
전력, 가스 및 증기	1,162,484	2.36%	73,890	3.04%	6.36%
건설	3,448,087	6.99%	19,710	0.81%	0.57%
도소매 서비스	2,674,527	5.42%	210,423	8.66%	7.87%
운송 서비스	1,393,350	2.82%	231,793	9.54%	16.64%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235,008	2.50%	341,098	14.04%	27.6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18,475	1.66%	55,091	2.27%	6.73%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396,907	4.86%	138,850	5.71%	5.79%
부동산	3,076,874	6.23%	176,785	7.28%	5.75%
사업 서비스	2,385,050	4.83%	157,012	6.46%	6.58%
의료 행정 서비스	5,534,094	11.21%	17,362	0.71%	0.31%
교육 문화 서비스	8,834,070	17.90%	214,204	8.82%	2.42%
합계	49,348,477		2,429,689		

○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LQ¹⁵⁾와 관광특화지수¹⁶⁾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 15) 관광LQ는 (지역 해당 산업 관광부가가치/지역 관광부가가치)/(전국 해당 산업 부가가치/전국 관광부가가치)로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춰 관광산업으로 지역 내 부족한 산업을 파악할 수 있음
- 16) 관광특화지수는 (해당 산업 관광 부가가치/해당 산업 부가가치)/(전국 해당 산업 관광 부가가치/전국 해당 산업 부가가치)로 전국 평균 수준 대비 관광산업의 집적화 수준을 나타낸 값으로 상대적으로 해당 산업의 관광산업 기여 수준을 의미함

[표 4-16] 전라북도 산업별 특화지수

산업	LQ	관광LQ	관광특화지수
농림수산물	3.88	2.65	1.14
음식료품 및 담배	3.03	2.23	1.23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0.56	0.44	1.29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1.61	0.85	0.8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0.98	0.63	1.08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1.07	0.71	1.11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1.05	0.52	0.8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0.17	0.20	1.95
전력, 가스 및 증기	1.34	1.08	1.34
건설	1.17	1.30	1.85
도소매 서비스	0.67	0.76	1.88
운송 서비스	0.84	1.08	2.15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02	1.20	1.97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0.36	0.35	1.6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0.85	0.73	1.44
부동산	0.79	1.04	2.19
사업 서비스	0.52	0.62	2.01
의료 행정 서비스	1.75	1.19	1.13
교육 문화 서비스	1.41	1.25	1.47

- 관광LQ는 타 지역의 관광산업과 비교하여 평균 수준에 미치지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 직접 관광산업 중에서 도소매 서비스, 사업서비스의 관광LQ 값이 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육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도소매 서비스의 경우 관광특화지수는 1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관광LQ가 낮다는 것은 도소매 서비스의 관광산업 역할을 타 지역 평균 대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소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판매 공간 확충 및 지역 특산물 홍보 전략이 필요함

제3절 전라북도 관광산업 유발계수

1. 전라북도 관광산업 유발계수 변화 추이

-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¹⁷⁾는 생산유발 측면에서 최종재 규모 대비 1.69배, 투자가치 유발 규모는 최종재 규모 대비 0.74배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 유발 효과는 10억원의 관광 최종재 소비가 지역 내에 이루어질 경우 16.8명의 고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도별 파급효과 계수의 변화 추이를 보면 생산유발승수와 부가가치유발승수는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유발승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7] 전라북도 관광산업 유발계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산유발승수	1.68	1.70	1.73	1.73	1.72	1.71	1.69
부가가치유발승수	0.70	0.68	0.71	0.70	0.76	0.76	0.74
취업유발승수 (명/십억원)	22.55	22.53	22.00	21.82	18.99	17.91	16.84

2. 지역별 관광산업 유발계수 비교

- 지역별로 관광산업 유발계수를 비교하면,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단위당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이며, 서울, 경남 순이며, 전라북도는 4번째임
-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면에서 단위당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며,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순임
-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단위당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이며,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순임

17) 지역내 직간접 관광산업 대상으로만 한정

- 이를 종합해 보면, 전라북도는 관광산업으로 지역 경제 성장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표 4-18] 지역별 관광산업 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명/십억원)
서울	1.94(2)	0.91(1)	19.08(1)
부산	1.58(10)	0.69(10)	15.82(11)
대구	1.60(9)	0.72(5)	15.87(10)
인천	1.47(15)	0.62(15)	14.56(15)
광주	1.55(11)	0.70(8)	15.34(13)
대전	1.47(14)	0.67(14)	14.91(14)
울산	1.40(16)	0.58(16)	13.93(16)
경기	2.00(1)	0.85(2)	17.70(2)
강원	1.55(12)	0.70(9)	15.99(8)
충북	1.61(6)	0.68(11)	16.19(6)
충남	1.61(7)	0.68(12)	15.72(12)
전북	1.69(4)	0.74(4)	16.84(3)
전남	1.61(8)	0.68(13)	16.36(5)
경북	1.63(5)	0.70(6)	16.17(7)
경남	1.74(3)	0.77(3)	16.70(4)
제주	1.52(13)	0.70(7)	15.89(9)

3. 지역 내 타 산업 유발계수 비교

- 전라북도 내 타 산업의 파급효과 계수와 비교하면 관광산업은 20개 산업 중에서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평균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전라북도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1.60이며, 가장 효과가 높은 산업은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산업은 평균 수준 이상으로 20개 산업 중 8번째로 높은 효과를 보여주는 산업임

-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면에서 전라북도 평균 유발계수는 0.72로 가장 효과가 높은 산업은 부동산이며, 관광산업은 평균 수준 이상으로 20개 산업 중 9번째로 높은 효과를 보여주는 산업임
- 취업 유발효과 측면에서 전라북도 평균 유발계수는 10.71로 가장 효과가 높은 산업은 농림수산물이며, 관광산업은 평균 이상으로 5번째로 높은 효과를 보여 주는 산업임
- 이를 종합해 보면, 동일한 규모의 최종재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때, 관광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이며, 평균 이상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9] 전라북도 산업별 특화지수

산업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명/십억원)
농림수산물	1.86(2)	0.92(6)	26.11(1)
음식료품 및 담배	1.85(4)	0.58(13)	12.63(9)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1.26(20)	0.36(20)	5.83(15)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1.41(17)	0.46(16)	6.40(14)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1.30(18)	0.42(18)	2.95(20)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1.44(16)	0.44(17)	4.28(1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1.44(15)	0.40(19)	5.06(16)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1.30(19)	0.47(15)	2.99(19)
전력, 가스 및 증기	1.49(14)	0.54(14)	4.46(17)
건설	1.55(13)	0.64(11)	8.93(12)
도소매 서비스	1.84(5)	0.99(4)	17.78(3)
운송 서비스	1.59(12)	0.73(10)	14.62(7)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69(6)	0.63(12)	17.40(4)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1.69(7)	0.83(8)	9.51(11)
금융 및 보험 서비스	1.85(3)	1.02(3)	10.16(10)
부동산	1.87(1)	1.20(1)	7.46(13)
사업 서비스	1.68(9)	0.97(5)	14.11(8)
의료 행정 서비스	1.66(11)	1.06(2)	14.76(6)
교육 문화 서비스	1.68(10)	0.90(7)	18.05(2)
관광산업	1.69(8)	0.74(9)	16.84(5)
평균	1.60	0.72	10.71

4. 관광객 유치 규모에 따른 유발계수 비교

- 앞서 지역별 비교에서는 동일한 최종재 소비를 전제로 두어 효과를 비교 하였는데, 사실 지역별로 1회당 여행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관광객 유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지라도 파급효과가 다르게 계산될 것임
- 즉, 관광산업을 기준으로 지역별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아닌 관광객 유치 규모에 따른 계수 값을 비교해야 함
- 관광객 1,0000명을 유치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한 결과, 전라북도의 파급효과 계수 순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동일한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관광객의 지역 내 지출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효과 규모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음

[표 4-20] 관광객 1,000명 유치 시 지역내 발생하는 효과

(단위: 백만원, 명)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서울	118.86(2)	55.68(2)	1.17(3)
부산	111.56(4)	48.41(4)	1.12(4)
대구	91.51(10)	41.29(10)	0.91(10)
인천	73.44(14)	31.25(15)	0.73(14)
광주	71.85(15)	32.38(14)	0.71(16)
대전	98.37(8)	44.71(6)	1.00(6)
울산	84.61(13)	35.37(13)	0.84(12)
경기	105.54(5)	44.78(5)	0.94(9)
강원	113.30(3)	51.10(3)	1.17(2)
충북	71.71(16)	30.31(16)	0.72(15)
충남	85.35(12)	36.02(12)	0.83(13)
전북	94.96(9)	41.56(9)	0.95(8)
전남	87.17(11)	36.69(11)	0.88(11)
경북	100.71(6)	43.44(8)	1.00(5)
경남	99.85(7)	44.07(7)	0.96(7)
제주	198.56(1)	91.39(1)	2.07(1)

5

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

- 전반적으로 관광 횟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관광 체류 일수 및 관광 1회 혹은 1일당 여행 지출 비용 규모가 낮아지는 추세로 지역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소비를 끌어들이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지역의 공통 과제임
- 전라북도의 경우 2017년 기준 20.4백만회의 여행객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9.3%의 증가를 보여 16개 시도 중에서 방문객 수와 증가율 측면에서 7번째로 평균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 숙박여행보다는 당일여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전라북도 내에서의 여행 체류 기간이 타 지역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 콘텐츠 부족 등으로 동일 기간 내에서의 평균 비용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아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내 여행 지출 비용 규모의 성장세가 낮은 편임
 - 전라북도는 2017년에 총 1.8조원을 지역 방문 여행객이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11년 대비 5.2% 증가하여 16개 시도 중에서 각각 9위와 10위를 기록하여 중위권 수준을 보임
 - 전라북도의 경우 1회 방문시 평균 8.7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16개 시도 중에서 9위에 위치하고 있음
 - 평균 여행 체류 일수가 가장 긴 지역은 제주도로 1회 방문 시 3.7일을 머물러 있는 반면, 전라북도의 경우 2.5일에 불과하며 이는 16개 시도 중에서 13위에 그침
 - 또한 2011년과 비교하였을 때 평균 여행 체류 일수는 2.8일에서 2.5일로 0.3일 감소하였으며, 이는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감소폭이 큰 지역임

- 따라서 전라북도 입장에서 관광객 확보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체류일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를 위해서는 관광 콘텐츠 개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류시설 확보가 필요함
- 또한 지역 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코스 및 스토리 개발을 통해 관광 여행객을 끌어들이야 함
- 전반적으로 관광여행 비중은 낮아지고 기타여행 및 당일여행의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는 KTX 및 고속도로 노선 확대 등으로 인한 교통 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전라북도 관광 GRDP

-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은 규모 측면에서는 중위권에 위치하지만, 지역 경제 규모 대비하여 점유율을 따지면 관광 부가가치는 전체 GRDP의 4.9%, 관광 취업자 수는 5.5%로 높은 편임
 - 16개 시도 중에서 각각 3위, 4위를 차지해 지역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 관광산업 특화지수를 보면, 전라북도의 관광산업 특화지수는 1.67로 16개 시도 중에서 3번째로 높은 수치로 지역에서 관광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관광산업의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음
 - 제주도와 강원도는 관광산업으로 특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을 제외한 14개 시군 중에서 관광산업 특화지수가 가장 높음
- 전라북도 산업의 대부분의 산업이 관광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관광 성격이 매우 강한 지역임
 - 산업별 실질 부가가치에서 관광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의 비중이 27.6%로 관광 성격이 매우 강함
 - 농림수산물과 음식료품 및 담배 역시 산업별 부가가치에서 관광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관광으로 인한 성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직접 관광산업 중에서 도소매 서비스, 사업서비스의 관광LQ 값이 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관광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육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도소매 서비스의 경우 관광특화지수는 1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관광LQ가 낮다는 것은 도소매 서비스의 관광산업 역할을 타 지역 평균 대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소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판매 공간 확충 및 지역 특산물 홍보 전략이 필요함

□ 관광산업의 파급효과

-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측정을 위한 계수 값을 도출한 결과, 취업유발승수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승수는 크게 변하지 않음
- 지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전라북도는 관광산업으로 인해 지역 경제 성장 효과가 크게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전라북도 내 타 산업의 파급효과 계수와 비교하면 관광산업은 전라북도 평균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약 관광객 1,0000명을 유치할 경우, 전라북도에 95백만원의 생산유발효과, 42백만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계산되었는데, 이는 동일한 규모의 관광객 유치가 다른 지역에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와 비교할 경우 많이 낮아짐
- 즉, 전라북도 입장에서 동일한 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관광객의 지역 내 지출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적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효과 규모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 확보가 필요함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통해 전라북도의 관광산업의 규모를 계산하고 이를 지역별 비교를 통해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함
- 김시백(2007)의 후속 연구 성격이 강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관광 소비의 OD 조사까지 하여 전라북도의 타 지역 관광 유입 효과까지 판단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광 소비 OD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두 연구 결과의 비교를 하지 못한 점이 한계임
- 또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더 보완하지 못하였는데, 특히 관광 최종재를 여행객의 소비 지출로만 파악했다는 점으로 정부의 관광사업 집행 및 관광사업체의 관광 투자 등을 반영하지 못함
- 이는 16개 지역별 관광산업의 규모 및 위상 비교에 초점을 맞춰 지역 관광위성계정을 작성하다 보니 방대한 양의 데이터 가공에 대한 수작업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연구 과정에서 연구 범위를 축소한 점이 있음
- 향후 전라북도 내 관광산업에만 초점을 맞춰 전북 관광위성계정 작성 및 좀 더 구체적인 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라북도 산업 구조 속에서 관광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라북도 관광산업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산업 측면에서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특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요 수요처인 관광객 실태를 보면 전라북도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기 힘든 상황임
- 앞으로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예술 분야의 콘텐츠 개발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관광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참고 문헌

■ 참고문헌

- 고태호, 황경수, 김의근, 오상훈(2006), MRIO 모형을 이용한 관광수요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18권 제3호
- 고태호, 황경수, 김의근, 오상훈(2010), MRIO 모형을 통한 지역간 관광산업 경쟁력 비교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2호
- 권태일, 이충희(2017), 관광분야 빅데이터 활용체계 및 실증분석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시백(2009), 전라북도 관광산업 규모예측을 위한 지역 관광위성계정 구축, 전북발전연구원
- 류광훈(2003), 관광산업의 사회, 경제적 효과 측정지표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2012), 관광산업 특수분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국민여행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2 국민여행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4), 2013 국민여행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4 국민여행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국민여행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국민여행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사업 분류체계 연구
- 박근화(2017), 문화체육관광산업의 규모 추정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강욱(2009),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관광산업의 경제 파급효과 분석,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 이강욱(2015), 한국 관광위성계정 개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임재영(2010), 충남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임재영, 류종현(2007), 지역 관광위성계정 구축을 통한 강원도 관광산업 규모 추정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 임재영, 류종현(2010), 지역 관광위성계정 작성을 통한 강원도 관광부가가치 규모 추정, 관광연구 , 제25권 제1호
- 임재영, 류종현(2012), 지역 TSA 작성을 통한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 지역의 관광 부가가치 추계 연구, 관광연구논총, 제24권 제2호
- 정광민, 김대관(2017), 관광위성계정(TSA)에 따른 관광GDP 기여도 산출 방법에 대한 탐색적 연구, 관광레저연구. 제29권 제9호
- 조광익, 임재영(1999), 관광투자와 지역의 성장: MRIO 모형의 적용, 관광연구논총, 제11권
- 지해명(2003). MRIO 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관광지출승수의 누출구조 분석, 서울도시 연구. 제4권 제2호
- 표학길(2018), 경제활동별 고정자본소모 추정방법론 기초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부 록

-
1. 지역별, 연도별, 항목별 여행 비용
 2. 전라북도 연도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

1. 지역별, 연도별, 항목별 여행 비용

[표 부록-1] 서울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209.9	407.9	408.7	283.3	277.7	258.0	343.8
운송	338.9	350.1	398.8	351.2	370.0	262.0	609.3
음식점 숙박	642.6	855.2	851.6	920.9	907.1	862.7	1,543.8
사업서비스	32.3	35.0	20.9	257.2	240.8	21.0	111.0
교육문화	536.1	325.4	339.4	726.5	617.1	600.2	434.4

[표 부록-2] 부산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207.5	375.3	159.9	131.2	150.3	172.8	171.9
운송	303.4	292.9	233.3	230.8	211.9	261.3	331.8
음식점 숙박	756.7	948.9	721.3	686.1	862.0	817.9	889.3
사업서비스	40.0	13.8	18.8	65.1	111.9	19.0	71.0
교육문화	120.8	134.9	59.7	63.3	62.1	147.7	199.5

[표 부록-3] 대구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30.4	82.7	157.7	39.0	24.1	58.8	59.5
운송	84.2	137.3	75.5	56.0	41.5	67.9	105.8
음식점 숙박	225.5	400.8	168.8	183.1	155.9	317.2	270.1
사업서비스	14.7	10.8	2.3	25.0	28.6	4.0	17.5
교육문화	133.4	58.5	59.5	163.4	59.2	73.9	74.7

[표 부록-4] 인천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33.6	76.5	70.1	27.4	68.7	74.1	80.3
운송	64.1	75.3	111.2	78.5	112.8	104.5	149.7
음식점 숙박	221.3	329.3	278.7	427.7	374.3	501.8	393.3
사업서비스	19.7	24.7	12.8	53.4	76.0	28.4	31.1
교육문화	48.2	45.1	33.3	3.9	119.2	105.8	96.3

[표 부록-5] 광주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80.5	59.1	2.7	2.7	55.2	24.8	44.1
운송	43.4	53.6	43.3	57.5	58.2	49.0	82.5
음식점 숙박	129.8	128.4	103.6	199.0	167.9	145.1	219.3
사업서비스	2.1	2.8	25.9	85.3	36.6	2.1	12.7
교육문화	28.4	108.8	13.7	59.6	106.5	106.2	52.6

[표 부록-6] 대전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15.1	35.1	39.4	11.6	47.1	51.6	79.8
운송	57.5	76.9	95.1	69.2	84.2	51.5	140.6
음식점 숙박	156.3	242.6	221.8	192.2	262.0	248.2	351.9
사업서비스	12.1	6.0	5.4	41.8	39.8	28.9	28.1
교육문화	118.0	63.8	74.7	214.7	123.1	213.7	101.9

[표 부록-7] 울산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11.9	16.4	26.1	9.0	17.9	9.5	31.5
운송	45.9	47.6	23.0	21.9	36.4	29.5	56.9
음식점 숙박	152.3	203.3	167.7	192.1	167.7	204.9	146.9
사업서비스	0.7	1.9	2.6	9.8	19.7	1.8	10.8
교육문화	9.6	13.6	39.7	3.5	0.6	20.6	38.9

[표 부록-8] 경기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126.8	130.0	124.0	95.5	161.7	177.2	457.4
운송	358.5	402.3	426.7	433.4	354.2	415.7	834.7
음식점 숙박	1,158.7	1,466.8	1,142.3	1,782.3	1,631.3	2,144.9	2,163.6
사업서비스	73.6	105.0	85.1	480.4	447.7	127.3	164.1
교육문화	372.3	400.6	376.8	223.4	739.4	603.5	559.9

[표 부록-9] 강원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178.4	171.6	182.1	145.0	239.5	393.7	325.2
운송	456.7	497.0	580.2	585.8	438.4	593.7	675.0
음식점 숙박	1,529.2	1,697.2	1,670.5	2,084.4	1,820.5	2,321.2	1,880.0
사업서비스	98.2	150.8	82.9	302.0	170.4	78.1	166.2
교육문화	142.6	204.9	193.1	75.4	142.9	271.6	348.6

[표 부록-10] 충북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50.7	31.4	54.3	29.8	66.8	76.5	113.6
운송	136.4	153.7	185.0	119.5	120.4	112.1	209.7
음식점 숙박	437.3	516.9	542.1	444.8	434.8	567.6	548.3
사업서비스	3.8	122.8	26.5	165.9	166.2	32.3	40.6
교육문화	36.9	75.3	44.3	143.2	100.4	152.6	137.5

[표 부록-11] 충남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95.6	119.0	152.3	140.1	218.1	175.1	254.8
운송	172.7	273.3	343.8	360.5	257.1	284.2	476.8
음식점 숙박	1,006.7	1,123.3	1,269.2	1,582.3	1,581.7	1,418.3	1,259.7
사업서비스	18.7	16.6	28.0	237.5	200.5	35.3	92.3
교육문화	114.6	168.3	139.6	55.4	194.9	261.2	303.9

[표 부록-12] 전북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127.6	97.6	132.9	54.7	119.2	166.2	189.7
운송	225.1	235.8	213.7	253.4	219.9	222.1	355.3
음식점 숙박	757.8	885.2	775.3	957.2	793.3	952.9	938.3
사업서비스	19.6	62.6	77.1	105.6	96.2	38.0	69.9
교육문화	185.6	79.9	122.2	83.0	294.4	301.7	226.2

[표 부록-13] 전남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192.9	174.5	184.6	99.4	223.9	219.8	215.7
운송	296.9	379.2	324.6	291.5	236.4	247.6	416.5
음식점 숙박	821.7	1,129.3	961.6	1,121.8	1,199.6	1,219.8	1,123.4
사업서비스	36.3	130.3	142.1	201.1	176.1	25.2	83.9
교육문화	102.3	354.7	193.2	38.2	85.4	328.7	248.6

[표 부록-14] 경북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193.7	218.9	268.8	72.9	211.2	134.5	211.3
운송	377.5	389.2	424.8	412.5	311.5	257.9	412.4
음식점 숙박	946.2	1,341.2	1,371.8	1,370.3	1,100.6	1,118.5	1,116.4
사업서비스	52.1	73.2	94.0	147.5	98.3	31.0	85.7
교육문화	172.1	203.0	155.1	92.3	80.5	162.6	241.7

[표 부록-15] 경남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286.8	206.1	240.7	83.3	208.4	243.6	221.7
운송	366.0	379.7	335.6	402.8	268.2	326.0	431.5
음식점 숙박	965.7	1,258.6	1,169.9	1,421.7	1,271.0	1,290.1	1,167.9
사업서비스	33.1	49.1	38.5	203.9	114.5	25.1	87.8
교육문화	98.7	191.4	186.6	20.6	86.5	169.2	253.9

[표 부록-16] 제주 연도별 여행지출 항목

(단위: 십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소매 서비스	400.5	433.4	448.3	294.4	465.9	422.5	271.6
운송	517.0	490.2	476.1	383.7	367.1	405.0	588.9
음식점 숙박	850.1	892.7	1,003.0	1,080.6	1,212.7	1,336.6	1,671.2
사업서비스	399.0	428.2	414.4	242.9	267.4	133.2	154.5
교육문화	139.1	140.0	167.3	71.0	88.0	217.3	277.2

2. 전라북도 연도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

[표 부록-17]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2011년)

(단위: 백만원)

산업	부가가치			관광 부가가치			
	규모	비중	LQ	규모	비중	관광LQ	관광특화지수
농림수산물업	3,857,477	8.45%	3.72	382,728	15.75%	2.50	1.14
음식료품 및 담배	1,474,433	3.99%	2.92	192,861	7.94%	2.07	1.21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254,744	0.54%	0.50	6,210	0.26%	0.38	1.28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631,704	1.32%	1.79	33,690	1.39%	0.93	0.8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2,523,648	5.45%	1.02	86,560	3.56%	0.67	1.11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2,028,897	5.09%	0.90	43,931	1.81%	0.57	1.09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304,894	6.69%	1.18	33,638	1.38%	0.60	0.87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766,366	1.69%	0.22	13,852	0.57%	0.24	1.89
전력, 가스 및 증기	799,524	2.36%	1.49	73,890	3.04%	1.19	1.35
건설	2,593,153	6.99%	1.36	19,710	0.81%	1.45	1.82
도소매 서비스	2,457,151	5.42%	0.69	210,423	8.66%	0.72	1.79
운송 서비스	993,886	2.82%	0.77	231,793	9.54%	0.97	2.14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886,200	2.50%	0.96	341,098	14.04%	1.30	2.30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04,770	1.66%	0.44	55,091	2.27%	0.43	1.68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128,712	4.86%	0.81	138,850	5.71%	0.69	1.46
부동산	2,491,834	6.23%	0.81	176,785	7.28%	1.07	2.25
사업 서비스	1,452,938	4.83%	0.43	157,012	6.46%	0.42	1.65
의료 행정 서비스	3,919,637	11.21%	1.62	17,362	0.71%	1.08	1.13
교육 문화 서비스	6,667,844	17.90%	1.34	214,204	8.82%	1.38	1.76
합계	40,037,810	100.00%		2,429,689	100.00%		1.70

[표 부록-18]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2012년)

(단위: 백만원)

산업	부가가치			관광 부가가치			
	규모	비중	LQ	규모	비중	관광LQ	관광특화지수
농림수산물	3,693,237	8.96%	3.51	329,799	18.12%	2.61	1.12
음식료품 및 담배	1,447,020	3.51%	2.84	140,378	7.71%	2.25	1.19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286,070	0.69%	0.53	6,503	0.36%	0.45	1.27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656,463	1.59%	1.81	33,142	1.82%	1.06	0.8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2,140,484	5.20%	0.87	69,368	3.81%	0.64	1.10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2,010,449	4.88%	0.89	33,865	1.86%	0.63	1.06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565,905	8.66%	1.24	35,411	1.95%	0.69	0.83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773,033	1.88%	0.21	12,448	0.68%	0.25	1.78
전력, 가스 및 증기	1,053,780	2.56%	1.83	58,366	3.21%	1.54	1.26
건설	2,831,906	6.87%	1.44	12,018	0.66%	1.58	1.65
도소매 서비스	2,514,107	6.10%	0.68	147,622	8.11%	0.65	1.45
운송 서비스	941,020	2.28%	0.71	132,870	7.30%	0.99	2.11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951,254	2.31%	1.00	312,954	17.20%	1.37	2.06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24,407	2.00%	0.43	45,966	2.53%	0.41	1.4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124,286	5.16%	0.84	105,048	5.77%	0.73	1.31
부동산	2,575,114	6.25%	0.80	128,371	7.05%	1.06	1.98
사업 서비스	1,678,073	4.07%	0.47	107,587	5.91%	0.59	1.89
의료 행정 서비스	4,143,630	10.06%	1.62	10,416	0.57%	1.05	0.98
교육 문화 서비스	6,990,077	16.97%	1.34	97,481	5.36%	0.81	0.91
합계	41,200,316	100.00%		1,819,614	100.00%		1.50

[표 부록-19]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2013년)

(단위: 백만원)

산업	부가가치			관광 부가가치			
	규모	비중	LQ	규모	비중	관광LQ	관광특화지수
농림수산물광산품	3,986,073	9.17%	3.74	327,963	17.87%	2.67	1.12
음식료품 및 담배	1,670,341	3.84%	2.98	147,497	8.04%	2.28	1.19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344,498	0.79%	0.61	7,263	0.40%	0.50	1.28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671,990	1.55%	1.76	30,796	1.68%	0.99	0.8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2,265,966	5.21%	0.88	66,226	3.61%	0.62	1.10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2,114,026	4.86%	0.93	32,204	1.75%	0.64	1.07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653,276	8.40%	1.23	33,209	1.81%	0.66	0.84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876,068	2.01%	0.22	12,787	0.70%	0.26	1.85
전력, 가스 및 증기	1,078,908	2.48%	1.59	56,959	3.10%	1.30	1.27
건설	3,177,804	7.31%	1.47	13,539	0.74%	1.57	1.68
도소매 서비스	2,519,029	5.79%	0.65	162,180	8.84%	0.71	1.69
운송 서비스	1,072,906	2.47%	0.74	135,372	7.38%	0.92	1.93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958,661	2.20%	0.96	273,789	14.92%	1.24	2.01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30,007	1.91%	0.41	47,402	2.58%	0.41	1.59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083,305	4.79%	0.83	99,859	5.44%	0.72	1.34
부동산	2,636,085	6.06%	0.78	127,103	6.92%	1.01	2.03
사업 서비스	1,917,983	4.41%	0.49	125,766	6.85%	0.66	2.12
의료 행정 서비스	4,365,544	10.04%	1.61	11,277	0.61%	1.07	1.04
교육 문화 서비스	7,255,757	16.69%	1.32	124,237	6.77%	1.08	1.28
합계	43,478,228	100.00%		1,835,428	100.00%		1.56

[표 부록-20]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2014년)

(단위: 백만원)

산업	부가가치			관광 부가가치			
	규모	비중	LQ	규모	비중	관람LQ	관광특화지수
농림수산물광산품	4,039,324	8.95%	3.74	382,540	18.71%	2.72	1.13
음식료품 및 담배	1,772,884	3.93%	3.02	179,850	8.80%	2.35	1.21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315,620	0.70%	0.56	6,960	0.34%	0.46	1.26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661,965	1.47%	1.67	32,693	1.60%	0.94	0.8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2,293,491	5.08%	0.90	73,056	3.57%	0.65	1.12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2,336,881	5.18%	1.00	39,851	1.95%	0.70	1.09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598,239	7.97%	1.20	34,737	1.70%	0.64	0.83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836,069	1.85%	0.21	13,050	0.64%	0.25	1.83
전력, 가스 및 증기	1,322,424	2.93%	1.54	76,293	3.73%	1.26	1.27
건설	3,284,246	7.27%	1.45	15,647	0.77%	1.54	1.66
도소매 서비스	2,465,400	5.46%	0.65	125,554	6.14%	0.59	1.40
운송 서비스	1,137,904	2.52%	0.73	162,075	7.93%	1.04	2.22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013,342	2.24%	0.97	329,552	16.12%	1.30	2.09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59,770	1.90%	0.40	47,881	2.34%	0.37	1.44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195,353	4.86%	0.83	111,299	5.44%	0.70	1.31
부동산	2,818,252	6.24%	0.78	143,566	7.02%	1.00	2.00
사업 서비스	2,008,983	4.45%	0.48	151,544	7.41%	0.60	1.95
의료 행정 서비스	4,590,929	10.17%	1.61	12,191	0.60%	1.04	1.00
교육 문화 서비스	7,600,628	16.83%	1.32	106,314	5.20%	0.92	1.08
합계	45,151,703	100.00%		2,044,653	100.00%		1.55

[표 부록-21]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2015년)

(단위: 백만원)

산업	부가가치			관광 부가가치			
	규모	비중	LQ	규모	비중	관광LQ	관광특화지수
농림수산물광산품	4,113,601	8.75%	3.76	374,777	16.68%	2.64	1.13
음식료품 및 담배	1,935,279	4.12%	3.07	188,931	8.41%	2.34	1.22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319,297	0.68%	0.60	7,237	0.32%	0.48	1.28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658,744	1.40%	1.61	33,678	1.50%	0.89	0.8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2,507,245	5.33%	0.93	81,382	3.62%	0.64	1.11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2,319,490	4.93%	0.99	41,012	1.82%	0.68	1.10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929,323	8.36%	1.24	40,755	1.81%	0.67	0.86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820,744	1.75%	0.21	13,505	0.60%	0.24	1.86
전력, 가스 및 증기	1,307,142	2.78%	1.31	82,439	3.67%	1.09	1.33
건설	3,240,143	6.89%	1.29	17,121	0.76%	1.40	1.73
도소매 서비스	2,532,748	5.39%	0.66	163,838	7.29%	0.66	1.60
운송 서비스	1,336,310	2.84%	0.77	167,871	7.47%	1.00	2.10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121,068	2.38%	0.99	295,044	13.13%	1.14	1.86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56,801	1.82%	0.39	54,508	2.43%	0.38	1.5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216,524	4.71%	0.81	121,289	5.40%	0.69	1.36
부동산	2,931,307	6.23%	0.78	154,052	6.85%	0.98	2.01
사업 서비스	2,119,419	4.51%	0.48	157,133	6.99%	0.59	1.97
의료 행정 서비스	4,863,176	10.34%	1.65	14,514	0.65%	1.11	1.08
교육 문화 서비스	7,889,669	16.78%	1.33	238,432	10.61%	1.64	1.97
합계	47,018,028	100.00%		2,247,519	100.00%		1.60

[표 부록-22]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2016년)

(단위: 백만원)

산업	부가가치			관광 부가가치			
	규모	비중	LQ	규모	비중	관광LQ	관광특허자수
농림수산물	3,963,718	8.28%	3.78	377,058	15.91%	2.53	1.13
음식료품 및 담배	1,949,463	4.07%	3.02	196,547	8.29%	2.18	1.22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301,587	0.63%	0.59	6,872	0.29%	0.45	1.30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704,177	1.47%	1.60	36,173	1.53%	0.84	0.8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2,675,052	5.59%	0.98	86,842	3.66%	0.65	1.11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2,188,449	4.57%	0.94	38,255	1.61%	0.62	1.12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720,895	7.77%	1.18	38,096	1.61%	0.60	0.86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756,957	1.58%	0.19	12,099	0.51%	0.22	1.93
전력, 가스 및 증기	1,318,203	2.75%	1.29	86,103	3.63%	1.04	1.36
건설	3,103,201	6.48%	1.13	17,391	0.73%	1.21	1.80
도소매 서비스	2,586,353	5.40%	0.66	195,472	8.25%	0.73	1.85
운송 서비스	1,378,430	2.88%	0.80	171,296	7.23%	0.97	2.04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212,152	2.53%	1.00	351,362	14.82%	1.20	2.02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77,381	1.83%	0.38	57,837	2.44%	0.38	1.6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255,894	4.71%	0.84	128,586	5.42%	0.71	1.42
부동산	3,042,482	6.35%	0.79	174,158	7.35%	1.01	2.16
사업 서비스	2,260,266	4.72%	0.51	127,791	5.39%	0.57	1.88
의료 행정 서비스	5,134,810	10.72%	1.69	16,022	0.68%	1.13	1.12
교육 문화 서비스	8,449,573	17.65%	1.39	252,683	10.66%	1.44	1.75
합계	47,879,046	100.00%		2,370,644	100.00%		1.69

[표 부록-23] 전라북도 산업별 관광 부가가치 점유(2017년)

(단위: 백만원)

산업	부가가치			관광 부가가치			
	규모	비중	LQ	규모	비중	관광LQ	관광특화지수
농림수산물광산품	4,168,703	8.45%	3.88	382,728	15.75%	2.65	1.14
음식료품 및 담배	1,967,218	3.99%	3.03	192,861	7.94%	2.23	1.23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265,071	0.54%	0.56	6,210	0.26%	0.44	1.29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품	651,791	1.32%	1.61	33,690	1.39%	0.85	0.88
석단 및 석유, 화학제품	2,690,351	5.45%	0.98	86,560	3.56%	0.63	1.08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	2,511,178	5.09%	1.07	43,931	1.81%	0.71	1.11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3,299,367	6.69%	1.05	33,638	1.38%	0.52	0.82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835,870	1.69%	0.17	13,852	0.57%	0.20	1.95
전력, 가스 및 증기	1,162,484	2.36%	1.34	73,890	3.04%	1.08	1.34
건설	3,448,087	6.99%	1.17	19,710	0.81%	1.30	1.85
도소매 서비스	2,674,527	5.42%	0.67	210,423	8.66%	0.76	1.88
운송 서비스	1,393,350	2.82%	0.84	231,793	9.54%	1.08	2.15
음식점 및 숙박 서비스	1,235,008	2.50%	1.02	341,098	14.04%	1.20	1.97
정보통신 및 방송 서비스	818,475	1.66%	0.36	55,091	2.27%	0.35	1.65
금융 및 보험 서비스	2,396,907	4.86%	0.85	138,850	5.71%	0.73	1.44
부동산	3,076,874	6.23%	0.79	176,785	7.28%	1.04	2.19
사업 서비스	2,385,050	4.83%	0.52	157,012	6.46%	0.62	2.01
의료 행정 서비스	5,534,094	11.21%	1.75	17,362	0.71%	1.19	1.13
교육 문화 서비스	8,834,070	17.90%	1.41	214,204	8.82%	1.25	1.47
합계	49,348,477	100.00%		2,429,689	100.00%		1.67

정책연구 2019-26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

발행인 | 김 선 기

발행일 | 2019년 10월 29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16-2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